

보도자료
본 자료는 11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25일(수)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거시] 동향·통계분석본부 홍성욱 연구위원 (044) 287-3192
[산업]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조철 선임연구위원 (044) 287-3046

2021년 경제·산업 전망¹⁾

2020. 11.



1)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 고유의 견해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차 례

< 요약 >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21년 국내경제 전망	14
II. 12대 주력산업 전망	30
1. 2020년 동향 및 진단	30
2. 2021년 주요 여건변화와 산업별 영향	40
3. 2021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50
4. 정책과제	65

| 요약 |

I.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 코로나19 영향의 완화 속에 예상보다 빠른 반등세

○ 국내 실물경기는 올해 2분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

- 민간소비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다시 감소한 모습이나,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
- 수출(통관기준)은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경기 위축,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 2분기에 큰 폭 감소한 이후, 하반기 들어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감소 폭이 빠르게 축소

□ 세계경제 : 플러스 성장률 회복 전망, 불확실성은 여전

○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 개시로 2020년에 비하여 코로나 위협이 상당 정도 억제된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

- 미국경제는 정부의 재정 부양과 연준의 저금리 기조 등으로 고용 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대하고, 유로권과 일본 역시 코로나19 영향의 완화에 따른 내수 안정 등으로 플러스 성장이 예상
-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억제와 내·외수의 동반 개선 속에서 연간 성장률이 약 8%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전망

□ **유가 및 환율 : 유가 배럴당 47달러 수준, 환율 1,110원 내외 예상**

-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산유국들의 공급량 조절 등으로 상승이 예상되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달러공급 확대,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이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연평균 1,110원 내외가 예상된다

□ **2021년 국내 경제성장 : 연간 성장률 3.2% 전망**

-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외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2%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이나,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 양상과 경기부양책 효과 지속 여부, 미·중 대립 추이 등이, 국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과와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 지속 여부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 : 전년대비 3%대 증가 전망**

- 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될 여지가 크나 고용 부진,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부담 증가,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우려, 정부의 추가 부양정책에 대한 부담감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투자 : 설비투자 7.0% 증가, 건설투자 3.2% 증가 전망

- 내년 설비투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과 ICT 부문의 선제적 투자수요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 역시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정부의 SOC 확대 정책 영향으로 토목 중심으로 회복할 전망

□ 수출입 : 수출 11.2% 증가, 무역흑자 소폭 확대 전망

- 2021년 수출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능력 강화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및 주요국의 경기회복과 전년 부진의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 전망
- 수입은 반도체 장비 수입과 국제유가 회복세,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증가하겠지만, 위축된 수요부문의 더딘 회복세와 2021년까지 지속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율이 수출보다는 다소 낮은 9.6% 전망
- 2021년은 전체 교역규모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521억달러 전망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9	2020년			2021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0	-0.7	-1.2	-0.9	2.9	3.5	3.2
민간소비	1.7	-4.4	-4.4	-4.4	2.7	3.2	3.0
설비투자	-7.5	5.7	6.6	6.1	4.5	9.6	7.0
건설투자	-2.5	2.1	-2.6	-0.3	1.5	4.9	3.2
통관 수출 (억달러, %)	5,422 (-10.4)	2,406 (-11.3)	2,638 (-1.5)	5,044 (-7.0)	2,710 (12.6)	2,898 (9.8)	5,608 (11.2)
통관 수입 (억달러, %)	5,033 (-6.0)	2,296 (-9.1)	2,346 (-6.5)	4,642 (-7.8)	2,491 (8.5)	2,596 (10.6)	5,087 (9.6)
무역수지	389	110	292	402	219	302	521

자료 : 산업연구원.

II. 12대 주력산업 전망

□ 2020년 진단: 코로나로 대부분 산업 실적 감소, 하반기는 감소세 둔화

○ 2020년 12대 주력산업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반적인 세계경기 부진으로 수요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원유가 하락,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이 9.9%나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4.8%로 크게 둔화

-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및 관련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 저장에 위한 SSD를 포함하는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인도 지연, 수요 부족 등으로 상반기에 수출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 가전,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하반기에 증가세로 반전

- 가전, 반도체 등은 비대면 사회에 따른 수요 및 대기수요 실현 등이 반영된 것이며, 이차전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것임.

○ 다수의 산업에서 내수가 감소했지만, 그 감소 폭이 크지 않고, 일부 산업은 내수가 오히려 증가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은 국내외 수요산업의 수출 수요가 위축되어 내수도 감소하였고, 가전은 국내 판매가 줄었지만, 하락 폭이 크지 않음.

- 다수의 신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루어진 자동차,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진 조선, 수요산업의 수출이 확대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신규 수요가 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등은 내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

□ 2021년 주요 여건 변화 : 국내외 수요는 회복되나 경쟁 여건 악화

- (세계수요 여건) 2021년에도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친환경 관련 신수요 등으로 일정부분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대부분 업종에서 중국의 부상이 2021년에도 우리의 해외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미국 대선 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아 경쟁 여건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소비 촉진 정책에 의해 올해에 수요가 실현되었던 자동차, 가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이 수요산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국내 수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국내 경쟁 여건 변화) 국내시장에서 중국 제품 및 해외생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경쟁 여건이 악화되겠지만, 신제품 출시 및 국내 생산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되는 측면도 존재

□ 2021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12대 산업, 기저효과로 10.6% 증가가 예상되나 2019년 수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 2021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고, 기저효과가 큰 상반기에 높은 증가 전망
 - 2021년은 올해에 비해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심화, 자국 산업 보호 경향 심화 등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최종 내구소비재로 경기에 민감하여 올해 수출이 크게 감소한 자동차,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정유, 석유화학 등은 10% 이상의 큰 폭 수출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증가세에 이어 각각 9.9%, 13.1%, 5.7% 등의 비교적 높은 수출 증가율 전망
- 해외생산 중심의 이차전지는 수출이 증가되겠지만, 해외 생산기지가 안정화되면서 해외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은 5.7%로 제한적 증가
- 디스플레이는 올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여 2021년 성장세를 보이는 하겠지만, 2.4%의 낮은 증가율 기록
- 수요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일반기계, 철강 등도 각각 6.3%, 7.7%의 수출 증가세를 구현하지만, 중국 등과의 경쟁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
- 대부분 산업이 올해 상반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커서 2021년 상반기의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

○ 내수: 대부분 산업이 증가세를 기록하나 제한적 성장세

- 올해 주요 산업의 내수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아 2021년 큰 폭의 증가세는 쉽지 않고, 일부 산업은 역기저 효과로 감소 전망
- 내수 진작책 등으로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자동차, 조선 등의 내수는 2021년 각각 3.4%와 10.5%의 감소를 기록하고, 국내 LCD 생산감소로 소재 수요에 의존하는 디스플레이의 내수도 1.1% 감소
- 반도체가 5.8%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가전 등 대부분 산업이 작년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하는 수준인 5% 미만의 증가세 전망

○ 수입: 수요 증가와 해외생산 및 수입 단가 상승으로 12대 산업 대부분 큰 폭 증가

- 경기회복 등으로 올해 높은 증가율 기록하였던 조선이 3.4%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2021년 대부분 산업에서 비교적 높은 수입 증가 전망
- 자동차 등은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8.4%나 증가할 전망
-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은 각각 13.7%, 10.1%, 3.8%, 5.0%, 15.3%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저가 범용제품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제품 수입 증가에 기인
- 국내 생산설비 증설과 관련한 제조 장비 및 부품 등의 수입 증가로 일반기계 수입이 3.2% 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 인상으로 정유(5.9%), 석유화학(18.4%) 증가

○ 생산: 수출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대부분 산업이 증가

- 수출이나 내수가 부진한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이 각각 1.1%, 3.5%만큼 다소 감소하지만, 대부분 산업이 생산 증가
- 내수 판매는 감소하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 생산은 6% 증가하고, 물량 기준으로 조선의 생산은 10.8% 증가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향으로 내수 및 수출의 증가로 반도체와 통신 기기는 각각 10.2%, 7.5%로 여전히 높은 생산 증가세 기록
- 가전, 디스플레이 등도 생산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감소율이 크게 둔화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이차전지 등은 3% 내외의 성장세 기록

2021년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주 1) 전망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정책과제

○ 정책 환경 진단 : 주요 기업의 경영 애로 지속과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 신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 2021년도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수출 등이 201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업 경영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
- 이와 더불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19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이에 따라 신산업이 출현하는 등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기존 산업에서도 고급화 및 차별화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

- 중국의 부상, 미중 마찰, 코로나 19 사태, 자국 산업 보호 육성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산업 기반 유지 및 구조조정 대책

- 많은 산업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유동성 공급, 수요 촉진, 고용 유지, 탄력적 노사관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정책 등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요구
- 경영상 애로 탈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주요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 및 매각, 대형화, 전문화, 비수익사업 정리 및 새로운 플랫폼 진출, 신산업분야로의 진출 등 구조조정을 추진

○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및 신산업 대응

- 신산업에 대해서는 수요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요구

○ 새로운 GVC 전략

- 변화되는 GVC에 대응하여 중국의 의존을 줄이거나 국내 리쇼어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가치사슬에 있어 국내의 새로운 산업기반 확충이 필요
- 고기술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와 더불어 리쇼어링을 통한 국내 생산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등과 같은 제조 혁신이 선행될 필요

I.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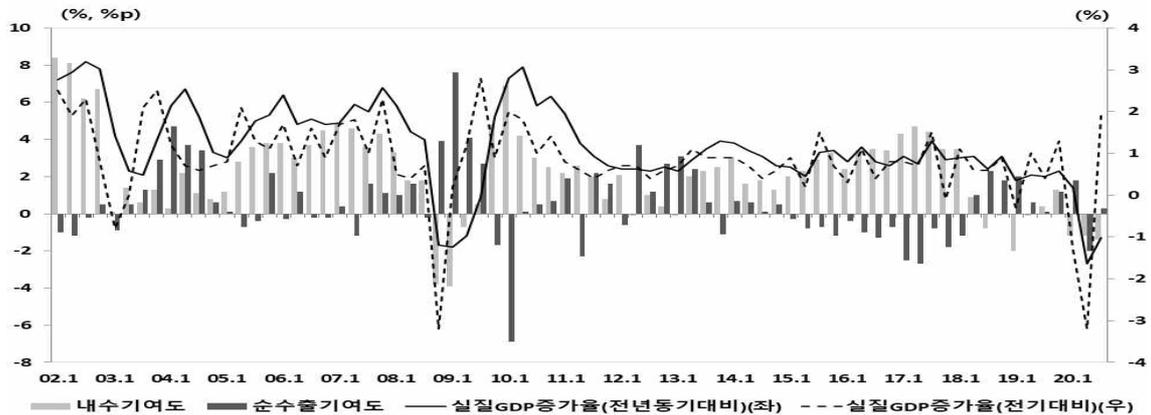
□ 현 경기 판단 : 코로나19 영향의 완화 속에 예상보다 빠른 반등세

○ 국내 실물경기는 올해 2분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

-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장기화 가능성도 있으나, 발생 초기와 같은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이나 피해는 아직 크지 않은 상황
- 민간소비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다시 감소한 모습이나,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
- 수출(통관기준)은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경기 위축,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 2분기에 큰 폭 감소한 이후, 하반기 들어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감소 폭이 빠르게 축소

- * GDP(전기비, %) : ('19.4/4) 1.3 → ('20.1/4) -1.3 → (2/4) -3.2 → (3/4) 1.9
- * GDP(전년동기비, 이하 同, %) : ('20.1/4) 1.4 → (2/4) -2.7 → (3/4) -1.3
- * 민간소비(%) : ('19.4/4) 1.9 → ('20.1/4) -4.8 → (2/4) -4.0 → (3/4) -4.5
- * 설비투자(%) : ('19.4/4) -2.0 → ('20.1/4) 7.3 → (2/4) 4.1 → (3/4) 9.1
- * 건설투자(%) : ('19.4/4) 2.6 → ('20.1/4) 4.2 → (2/4) -0.1 → (3/4) -1.6
- * 통관수출(%) : ('19.4/4) -11.8 → ('20.1/4) -1.8 → (2/4) -20.3 → (3/4) -3.2

<그림 I-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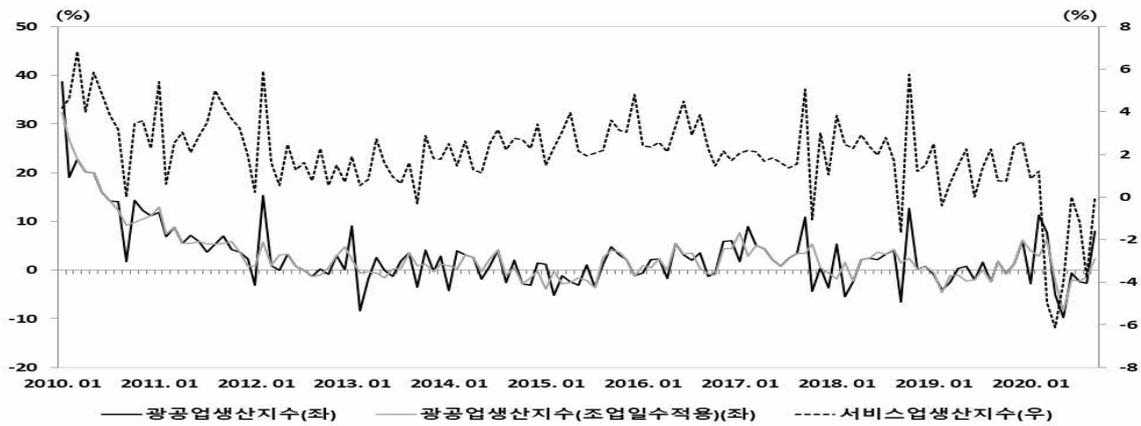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4월까지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광공업 생산도 지난 6월부터 회복되고 있는 양상

* 광공업(전년동월비, %) : ('20.5월) -9.7 → (6월) -0.6 → (7월) -2.4 → (8월) -2.6 → (9월) 8.0
 * 서비스(전년동월비, %) : ('20.5월) -4.0 → (6월) 0.0 → (7월) -1.2 → (8월) -3.8 → (9월) 0.0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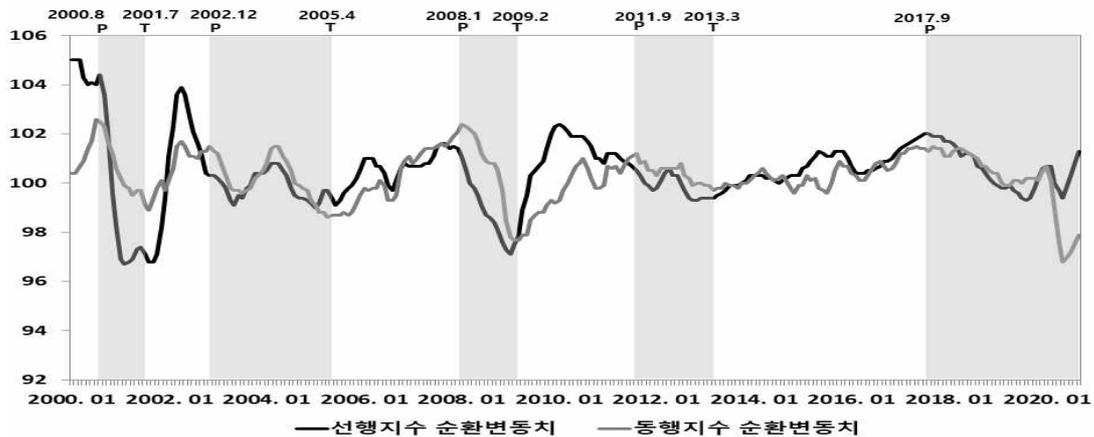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경기지표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크게 하락한 뒤, 6월부터 동반 상승세로 전환

* 선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5월) -0.3 → (6월) 0.5 → (7월) 0.4 → (8월) 0.6 → (9월) 0.4
 * 동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5월) -0.8 → (6월) 0.2 → (7월) 0.2 → (8월) 0.4 → (9월) 0.3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2. 대외여건 전망

(1) 세계경제

□ 2020년 동향 : 상반기 성장세 급락, 하반기 들어 반등 전환

○ 세계 실물경기는 연초 신흥권에서 촉발된 급격한 하강세가 선진권으로 전이되고, 하반기 들어서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

- 선진권은 유로존과 일본에서 연초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미국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급락한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반등세로 전환

- 개도권은 중국이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는 등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 등지에서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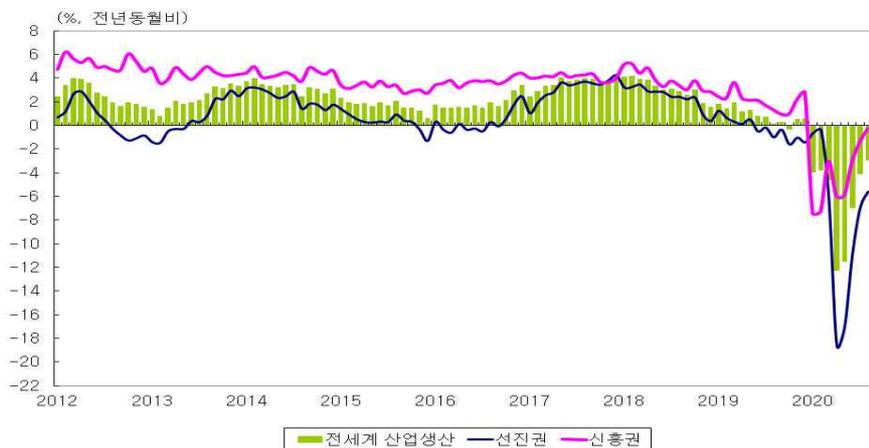
- 전세계 산업생산은 연초 신흥권에서 선진권으로 감소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 폭이 축소

* 세계 산업생산 : (2019) 0.9% (2020.상반기) -7.2% (2020.7~8월) -3.6%

· 선진권 : (2019) -0.3% (2020.상반기) -9.0% (2020.7~8월) -6.3%

· 신흥권 : (2019) 2.0% (2020.상반기) -5.5% (2020.7~8월) -0.8%

<그림 I -4> 전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21년 전망 : 플러스 성장률 회복, 불확실성은 여전

- 2021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완만한 성장과 개도권의 강한 성장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여부, 정책 효과 지속 여부 등이 주요 변수
 -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 개시로 2020년에 비하여 코로나 위협이 상당 정도 억제된다는 전제하에 미국경제는 정부의 재정 부양과 연준의 저금리 기조 등에 힘입어 고용 여건 등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대
 - 유로권과 일본 역시 코로나19 영향의 완화로 투자·소비 심리가 점차 안정되면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억제와 내·외수의 동반 개선 속에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
 -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관건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방향과 백신 개발 및 보급 시기이며, 주요국들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여부와 각종 경기 부양책 효과 지속 여부 등도 주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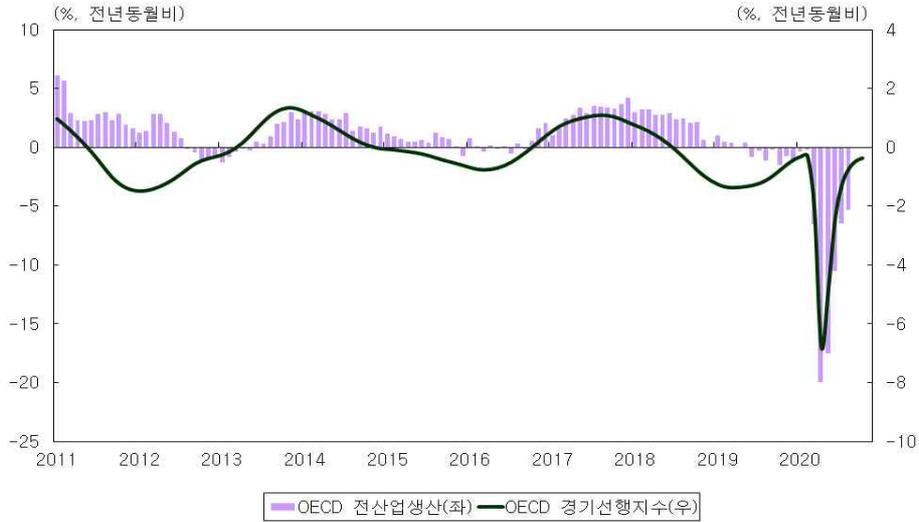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19			2020			IMF		OECD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2020	2021	2020	2021
세 계			2.8				-4.4	5.2	-4.5	5.0
선진권	1.6	1.7	1.7	-0.9	-11.7	-	-5.8	3.9	-	-
미 국	2.2	2.2	2.2	0.3 (-5.0)	-9.0 (-31.4)	-2.9 (33.1)	-4.3	3.1	-3.8	4.0
유로존	1.3	1.2	1.2	-3.3	-14.8	-4.3	-8.3	5.2	-7.9	5.1
일 본	0.9	0.5	0.7	-1.8	-10.2	-5.8	-5.3	2.3	-5.8	1.5
개도권			3.7				-3.3	6.0	-	-
중 국	6.3	6.0	6.1	-6.8	3.2	4.9	1.9	8.2	1.8	8.0
세계교역			1.0				-10.4	8.3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10월),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2020.9월).

〈그림 1-5〉 OECD 산업생산 및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표 1-2〉 OECD 및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장기 추세=100)					전월비 변화율 (%)					전년 동월비	경기 전망**
	2020					2020					2020.	
	6월	7월	8월	9월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OECD	96.9	98.1	98.6	98.8	99.0	2.52	1.17	0.52	0.27	0.15	-0.37	개선세 둔화
유로존	97.0	97.8	98.1	98.2	98.3	3.71	0.78	0.30	0.14	0.08	-1.38	개선세 둔화
아시아 개도권*	96.4	97.4	98.1	98.4	98.8	1.69	1.05	0.72	0.29	0.33	-0.46	개선세 둔화
선진권(G7)	96.6	97.9	98.5	98.8	98.9	2.53	1.38	0.56	0.31	0.17	-0.26	개선세 둔화
캐나다	98.3	98.8	99.2	99.5	99.7	1.23	0.55	0.40	0.29	0.14	1.49	개선세 둔화
프랑스	97.0	97.2	97.3	97.4	97.4	4.70	0.15	0.14	0.12	-0.05	-2.10	추세이하 성장
일본	97.9	98.4	98.9	99.1	99.2	0.10	0.49	0.44	0.20	0.15	-0.65	개선세 둔화
독일	98.0	99.2	99.6	99.8	99.9	4.94	1.18	0.41	0.19	0.17	0.92	개선세 둔화
이탈리아	96.7	97.7	98.3	98.7	99.1	3.12	1.05	0.53	0.42	0.40	-0.51	개선세 둔화
영국	94.5	98.6	99.5	99.4	98.9	4.77	4.35	0.89	-0.13	-0.53	1.31	성장 둔화
미국	96.0	97.4	98.1	98.5	98.8	2.05	1.51	0.66	0.44	0.29	-0.50	개선세 둔화
브라질	100.1	101.3	102.6	103.2	103.7	4.96	1.16	1.36	0.55	0.50	0.42	개선세 둔화
중국	98.2	98.7	99.2	99.6	100.1	0.40	0.49	0.50	0.40	0.49	1.57	완만한 성장세
인도	91.6	94.7	96.3	96.5	96.6	7.24	3.35	1.73	0.14	0.14	-3.29	개선세 둔화
러시아	98.1	98.8	98.8	98.8	98.8	5.29	0.73	0.00	-0.01	-0.02	-1.63	추세이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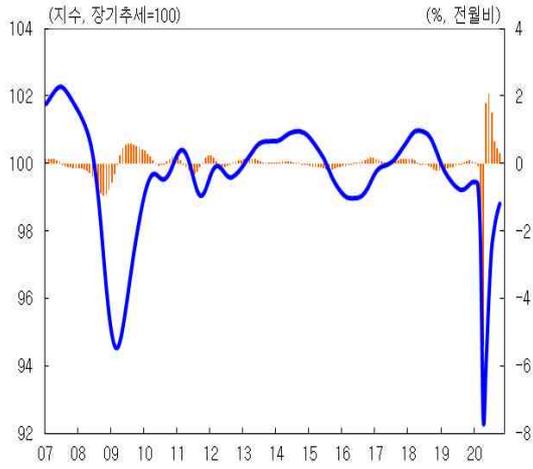
자료 : OECD.

주 1)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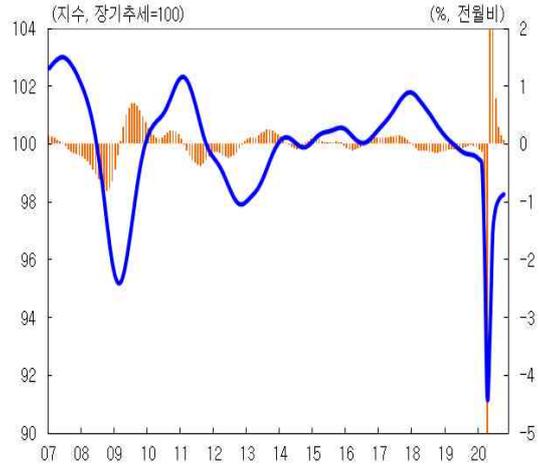
2)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하면 expansion(또는 downturn), 반대로 100 미만(음영 부문)에서 상승(또는 하락)하면 recovery(또는 slowdown)를 의미.

<그림 I -6> 세계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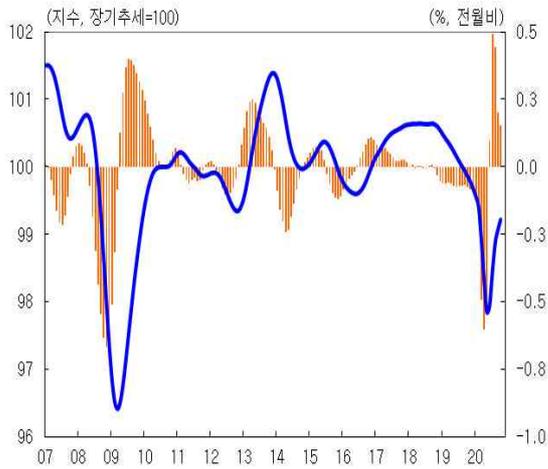
(a)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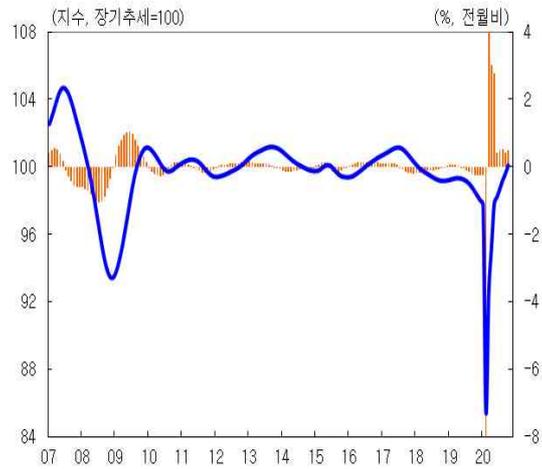
(b) 유로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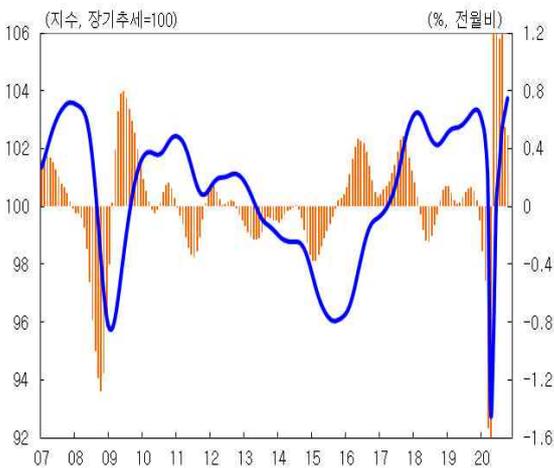
(c)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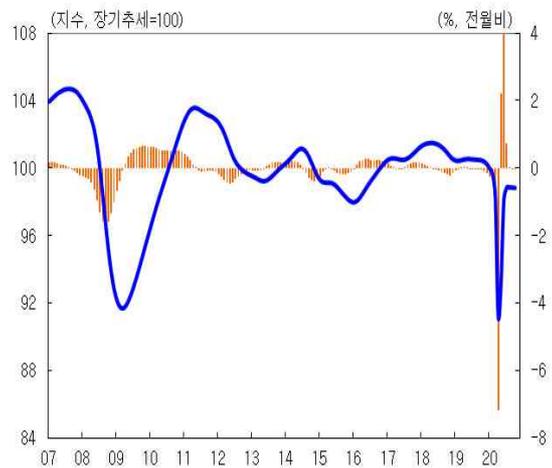
(d) 중국



(e)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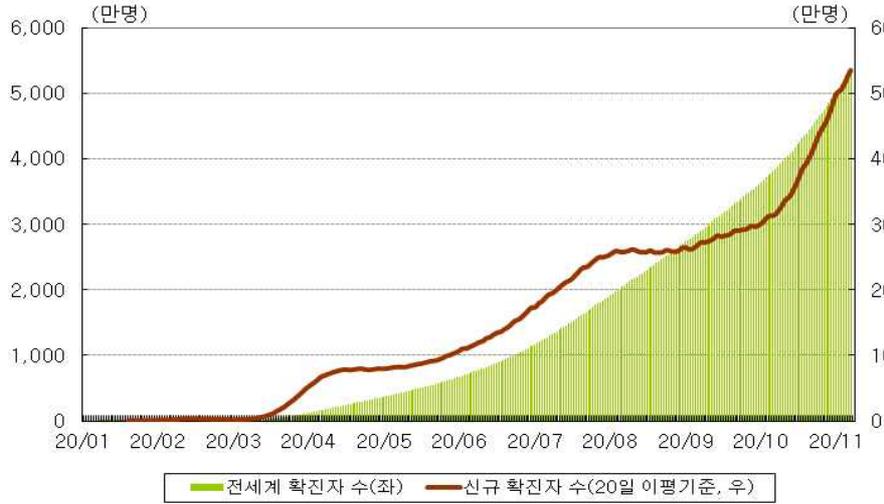


(f)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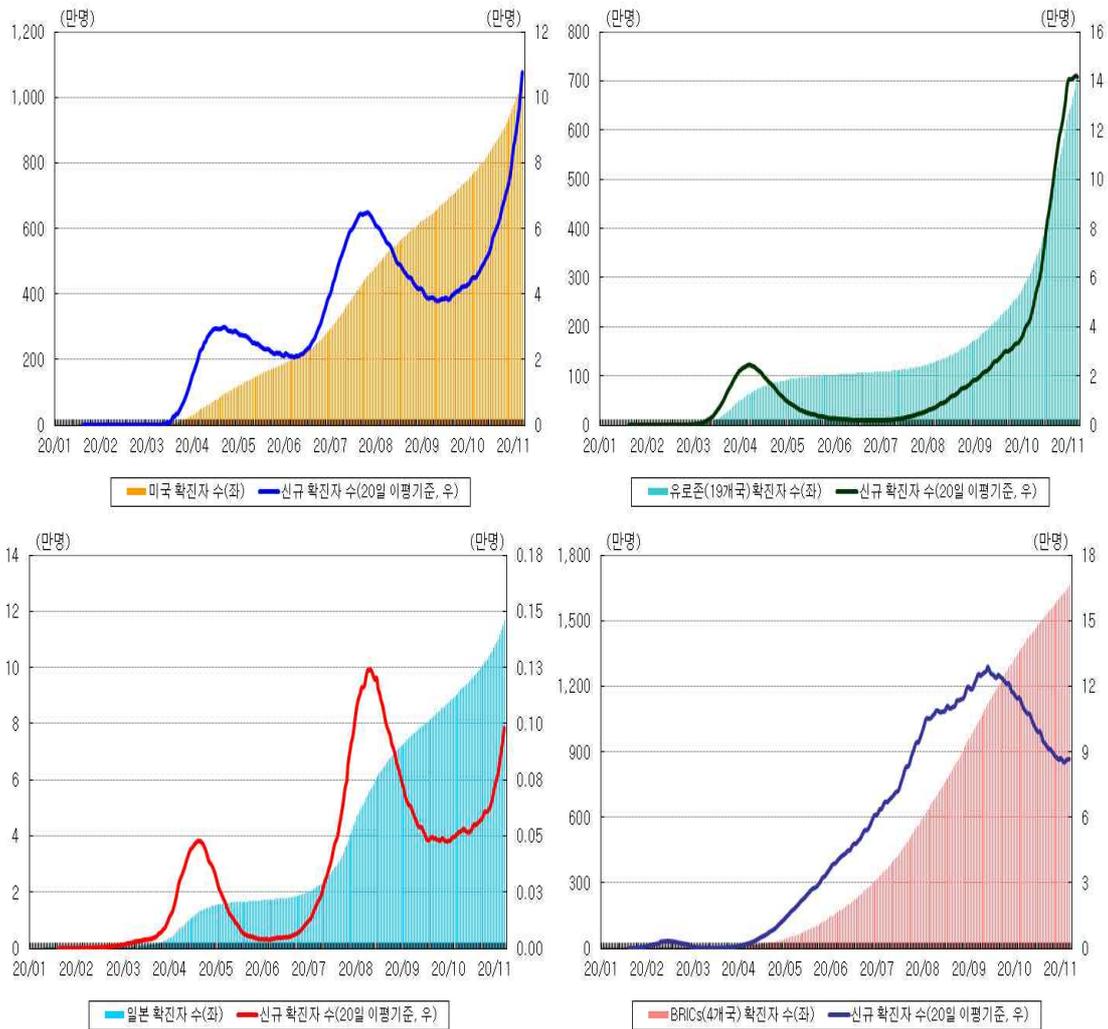
자료 : OECD.

<그림 1-7>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자료 : WHO.

<그림 1-8> 주요국 및 권역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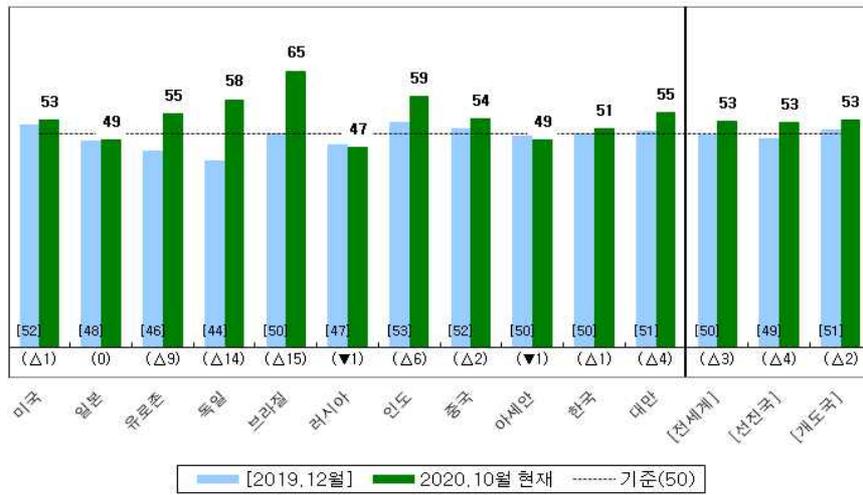


자료 :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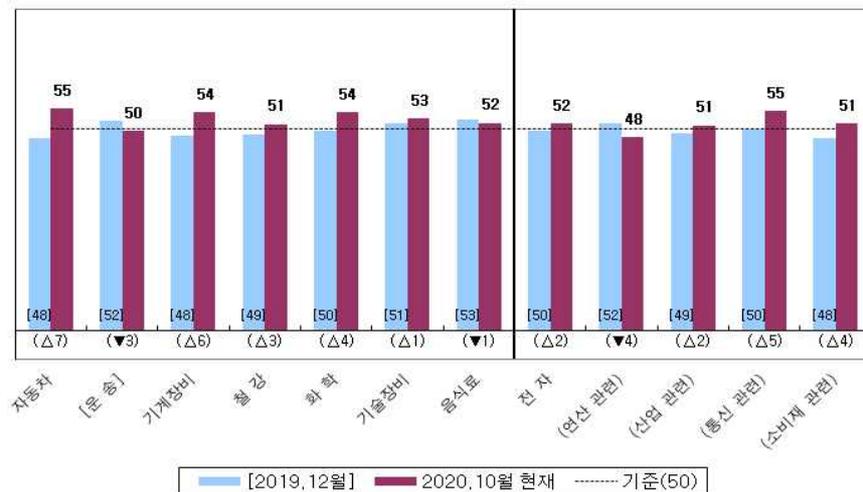
<그림 I -9> IHS Markit의 글로벌 제조업 PMI와 OECD 경기선행지수



<그림 I -10> 전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 (2019년말 대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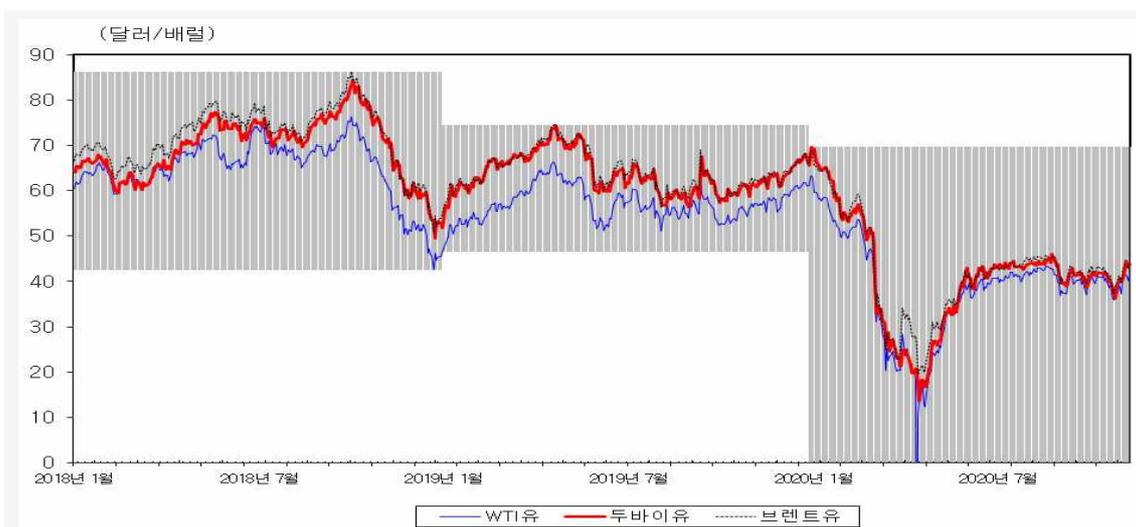
<그림 I -11> 전세계 주요 업종별 PMI (2019년말 대비 현재)



(2) 유가 : 전년대비 소폭 상승 전망

- 연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락하였던 국제유가는 5월 이후 40달러 수준까지 반등한 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들어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
 -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감소에 대한 불안으로 10달러 수준(2001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하였지만, 원유 공급 국가들의 감산 노력과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5월 이후 국제유가는 40달러 수준까지 반등
 - 이후 리비아 정정 불안 및 미-이란 간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입 증가와 원유 공급 국가들의 지속적인 감산 이행으로 석유재고 증가세가 완화되며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
 - 그러나 최근 중국 및 인도의 수요회복 둔화세와 미·유럽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그림 1-12〉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음영 부문은 연간 변동 범위(최소값~최대값)임.

〈표 1-3〉 국제유가 현황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1월
WTI	62.9	67.9	69.5	59.1	64.8	54.9	59.9	56.4	56.9	57.0	46.1	30.5	42.9	41.4
Brent	67.2	75.0	75.8	68.4	71.6	63.8	68.5	62.0	62.0	63.5	50.6	32.9	43.4	42.8
Dubai	63.9	72.1	74.1	67.7	69.5	63.4	67.6	61.1	62.4	64.2	50.8	27.4	40.9	39.6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2020년 11월은 11. 17 현재 기준.

- 2021년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로 상승할 것이 예상지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전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세계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 예상되지만,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OPEC+ 국가 및 미국 등 주요국의 감산 노력으로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회복 속도에 맞춘 공급량 조절로 유가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백신 개발로 인한 유가 급등이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가 급락 등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
- 두바이유 기준 2021년 유가는 상반기 45.5달러(전년동기비 12.1% 상승), 하반기 49.0달러(전년동기비 15.4% 상승), 연간 47.3달러(전년동기비 13.8% 상승)로 예상

〈표 I -4〉 2020년 및 2021년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단위 : 달러/배럴

	2020년					2021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WTI유	45.3	28.0	40.9	40.8	38.8	42.2	45.0	45.5	46.0	44.7
브렌트유	50.0	29.5	43.0	42.3	41.2	44.1	47.0	48.0	49.0	47.1

자료 : EIA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2020년 10월)

〈표 I -5〉 2021년 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40.6 (-38.1)	42.5 (-31.0)	41.5 (-34.7)	45.5 (12.1)	49.0 (15.4)	47.3 (13.8)

주 : ()는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

(3) 환율 : 전년대비 하락 전환 예상

-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하반기 들어서며 코로나 확산세 둔화 및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하는 모습
- 1분기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어 달러의 가치가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달러 환율이 연 최고점인 1,285원 (3월 19일)을 기록
-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5월 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3분기에 들어서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및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의 움직임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하락하기 시작
- 특히 9월 이후 중국 자본시장 개방 정책 발표 및 안정적인 경기회복과 미 대선에서의 바이든 당선 기대감 등이 위안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
- 최근 미 대선 이후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현상을 가속화하며 원/달러 환율은 연 최저수준을 연일 갱신하며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림 I-13> 최근 원/달러, 원/엔(100엔),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 국면,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달러공급 추가 확대,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세로 인한 위안화 강세 등이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대비 하락할 것이 예상

- 상반기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약화와 미국의 추가적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달러공급 증가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나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며 달러화의 추가적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연초 한국과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한 국내로의 해외 자본 유입 및 대중 수출 증가는 추가적인 원화 강세요인이나 하반기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 증가로 한국으로 유입되었던 자본들이 해외로 이동하며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090원(전년동기비 9.8% 하락), 하반기 1,130원(전년동기비 2.6% 하락), 연간 1,110원(전년동기비 6.2% 하락) 내외 예상

* 상반기 전망치인 1,090원은 2018년 6월 이후 최저수준

<표 I-6> 원/달러 환율 전망치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207.8 (5.3)	1159.7 (-0.9)	1,183.7 (2.2)	1,090.0 (-9.8)	1,130.0 (-2.6)	1,110.0 (-6.2)

주 1) ()는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단위 %

주 2) 2020년 하반기는 11. 17 현재 기준

3. 2021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외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2%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소비도 전년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 전환이 예상되며, 투자는 건설투자가 3년 만에 증가세 전환이, 설비투자는 2년 연속 증가세 유지가 예상
- 수출은 각국의 대응력 강화 및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회복과 주요국 경기 부양책의 효과,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이 예상
 - 2021년 수출은 전년대비 약 11.2%, 수입은 약 9.6% 증가하고, 무역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늘어난 약 521억 달러 수준이 예상
- 내수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에서 벗어나며 점진적인 반등세가 예상되며, 투자 역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서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설비투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과 ICT 부문의 선제적 투자수요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 역시 한국판 뉴딜 등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정부의 SOC 확대 정책 영향으로 반등할 것이 예상
 - 소비는 전년도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 등으로 회복이 예상되나, 가계부채 부담과 임금상승률 둔화 등은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이나,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 양상과 경기부양책 효과 지속 여부, 미·중 대립 추이 등이, 국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과와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 지속 여부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1-7〉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9	2020년			2021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0	-0.7	-1.2	-0.9	2.9	3.5	3.2
민간소비	1.7	-4.4	-4.4	-4.4	2.7	3.2	3.0
설비투자	-7.5	5.7	6.6	6.1	4.5	9.6	7.0
건설투자	-2.5	2.1	-2.6	-0.3	1.5	4.9	3.2
통관 수출 (억달러, %)	5,422 (-10.4)	2,406 (-11.3)	2,638 (-1.5)	5,044 (-7.0)	2,710 (12.6)	2,898 (9.8)	5,608 (11.2)
통관 수입 (억달러, %)	5,033 (-6.0)	2,296 (-9.1)	2,346 (-6.5)	4,642 (-7.8)	2,491 (8.5)	2,596 (10.6)	5,087 (9.6)
무역수지	389	110	292	402	219	302	521

자료 : 산업연구원.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와 소비활동 제약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 축소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
- 연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충격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민간소비도 큰 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경기부양책 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2분기 들어 소폭 반등하고, 3분기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세 심화와 장기화 가능성 우려, 정부의 정책 효과 소멸 등으로 부진 지속
- 민간소비는 1분기에 4.8% 감소하며 IMF 경제위기(98년 4분기: -9.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
- 실질총소득(GNI)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수출물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에 전년동기비 1.7% 감소(전기비 2.2% 감소)
-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요인으로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크게 위축된 모습

〈표 1-8〉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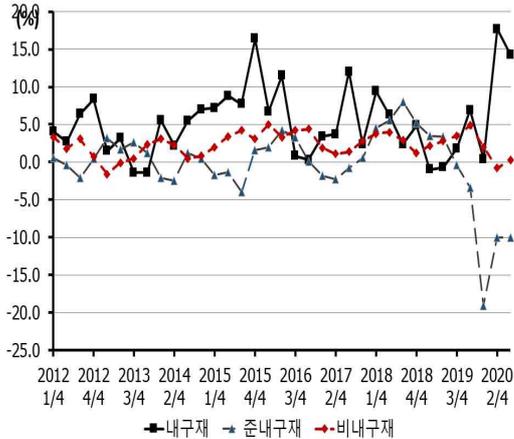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				2020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민간소비	3.2	1.4 (0.1)	1.8 (0.7)	1.6 (0.4)	1.9 (0.7)	1.7	-4.8 (-6.5)	-4.0 (1.5)	-4.5 (-0.1)
소매판매액 지수	4.3	1.6 (0.9)	2.0 (0.5)	2.2 (0.3)	3.4 (1.9)	2.4	-2.9 (-6.4)	1.9 (6.5)	1.8 (-0.7)
실질 GNI	1.6	-0.4 (0.1)	0.0 (-0.2)	0.0 (0.4)	0.8 (0.6)	0.1	0.0 (-0.8)	-1.7 (-2.2)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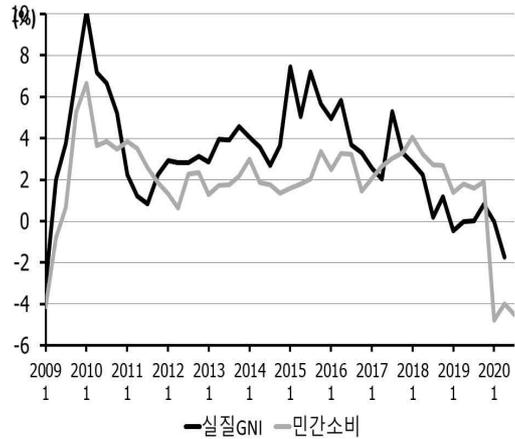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I-14> 재화별 소비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I-15> 민간소비와 실질GNI
(전년동기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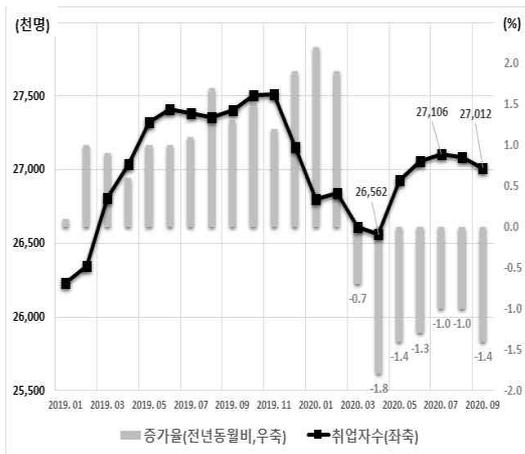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취업자수는 3월 이후 전년동기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의 고용의 위축 현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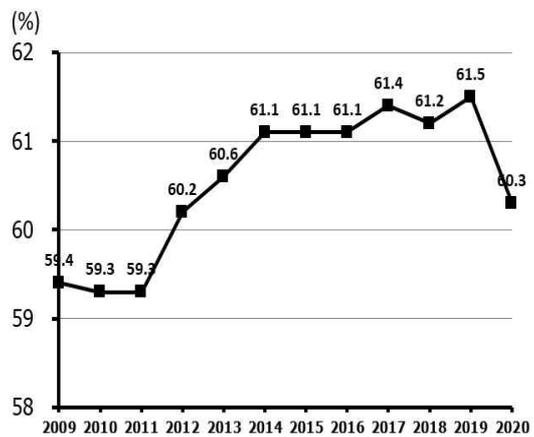
- 2020년 9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비 1.4% 감소한 2,701만명, 9월 고용률은 전년도 9월의 61.5%에 비해 1.2%p 감소한 60.3%

<그림 I-16>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17> 고용률 추이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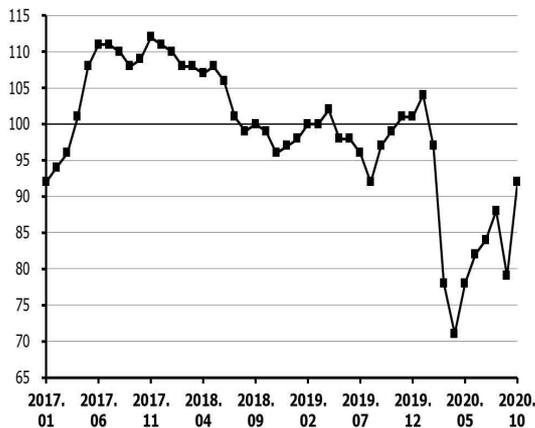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소비자 심리지수는 9월 92 수준으로 기준선(100)에는 못 미치지만 4월 이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대출금리도 하락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은 소비에 긍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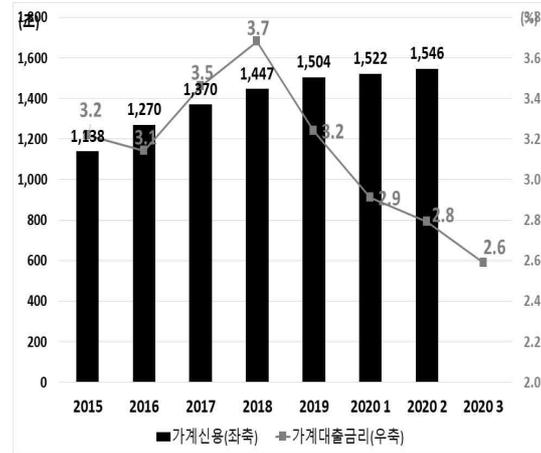
- 다만, 가계부채 역시 누적되고 있는 점은 민간소비 확대의 제약요인

<그림 I -18>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I -19>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021년 민간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될 여지가 크나 고용 부진,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부담 증가,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우려, 정부의 추가 부양정책에 대한 부담감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

-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전망되고, 소비심리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감소하는 상황 등은 소비 진작에 긍정적 요인

<표 I -9> 민간소비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4.4	-4.4	-4.4	2.7	3.2	3.0

자료 : 산업연구원.

2) 투 자

□ 설비투자

- 올해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운송장비 등에서 크게 줄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계류 투자가 전년보다 증가하여 2017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
 - * 미·중 무역갈등으로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2018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분기에 증가세로 전환
 -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반등한 것은 기저효과 측면도 있지만,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및 ICT산업의 투자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
- 부문별 설비투자지수를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기계류 설비투자가 2월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로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하였던 운송장비 설비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및 이동의 급격한 감소로 부진한 모습
 - *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의 영향으로 4, 5월과 8월에는 계획된 설비투자 진행이 지연되어 간헐적으로 부진한 모습
 - 기계류 설비투자에서는 일반기계류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운송장비에서는 기타운송장비가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부진

〈표 1-10〉 설비투자 추이

단위 : %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¹⁾
전년 동기 비	설비투자	-17.4 (-8.5)	-7.0 (2.6)	-2.3 (1.7)	-2.0 (2.6)	-7.5	7.3 (0.2)	4.1 (-0.5)	9.1 (6.7)
	기계류	-22.2 (-6.1)	-13.4 (0.4)	-7.3 (-1.3.)	-0.3 (7.1)	-11.5	4.3 (-2.1)	6.6 (8.7)	
	운송장비	3.0 (-14.7)	13.8 (8.9)	14.4 (9.6)	-6.1 (-8.2)	5.3	16.9 (6.6)	-2.3 (-6.6)	

자료 : 한국은행.

주: 1) 잠정치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표 I-11〉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비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¹⁾	9월 ¹⁾
총지수	-4.1	16.0	10.4	1.9	3.5	13.6	8.1	-1.4	16.8
기계류	-7.3	11.9	12.6	-0.2	3.8	15.7	17.2	6.4	12.9
일반기계류	-8.1	20.0	23.4	3.7	15.9	24.3	34.8	18.0	20.2
전기및전자기기	-3.9	-7.7	-2.7	-1.3	-4.5	3.4	-4.1	-6.4	6.5
정밀기기	-10.0	15.2	2.6	-12.5	-19.5	7.3	3.6	-1.5	1.8
기타기기	-7.0	10.4	0.9	-5.8	-16.6	3.8	-7.8	-12.7	3.2
운송장비	4.7	28.8	4.6	8.0	3.0	7.8	-12.5	-18.4	27.1
자동차	-15.5	-8.3	7.2	12.5	12.6	29.0	-7.9	-5.5	27.6
기타운송장비	36.2	98.7	0.2	1.2	-11.2	-17.8	-18.3	-33.0	26.5

자료 : 통계청.

주: 1)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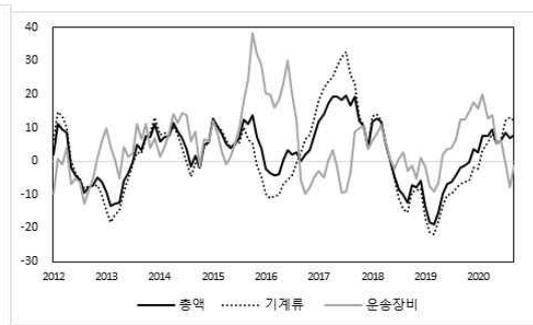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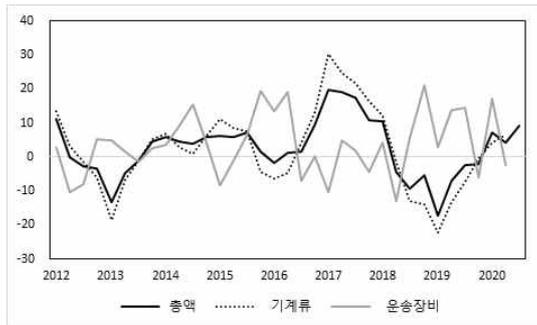
〈그림 I-20〉 설비투자 추이

(a)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b)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비)

(%,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3개월 중심향 이동 평균

- 2021년 설비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를 비롯한 ICT 부문의 선제적 투자수요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의 경우 내년 업황 회복과 경쟁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에서 설비투자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쟁국들과의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OLED 설비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은 화웨이 제재와 5G 스마트폰 보급의 가속화가 설비투자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정유, 철강산업에서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설비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운송장비의 경우 올 하반기 부진이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자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이 커서 세계경기 회복 예상에 따른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증가하고,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 역시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 9월 운송장비 설비투자지수(잠정치)는 증가세로 전환(-18.4%→27.1%)
- 설비투자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BSI 역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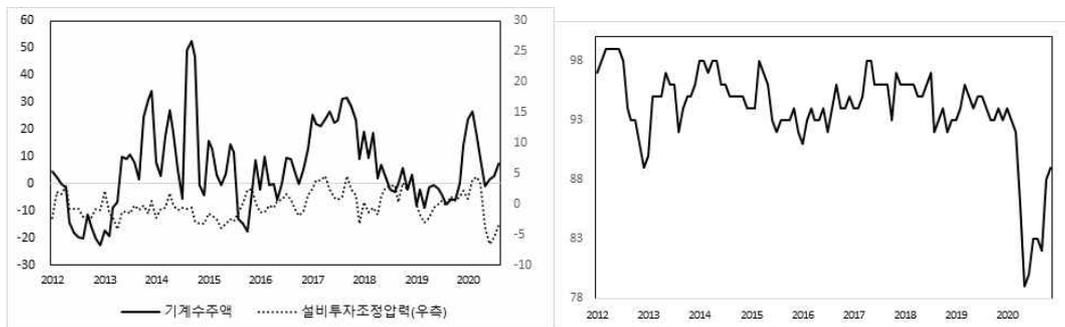
〈그림 1-21〉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a) 설비투자 선행지수 증가율

(b)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 전년동기비)

(BSI, 기준=100)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주: 1) 기계수주(불변, 선박을 제외한 국내수요)와 설비투자조정압력은 3개월 중심항 이동 평균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3)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지연과 부동산 긴축기조의 지속으로 건물건설에서 부진이 이어졌으나 정부 토목건설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감소폭이 축소
 - 2018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2분기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3분기에는 특히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건설지연으로 하락
 - 형태별로 보면 토목건설의 회복과 건물건설의 부진이 대비되고, 건설 주체별로 보면 정부건설의 성장세와 민간건설의 부진 역시 대비되는 모습

〈표 1 -12〉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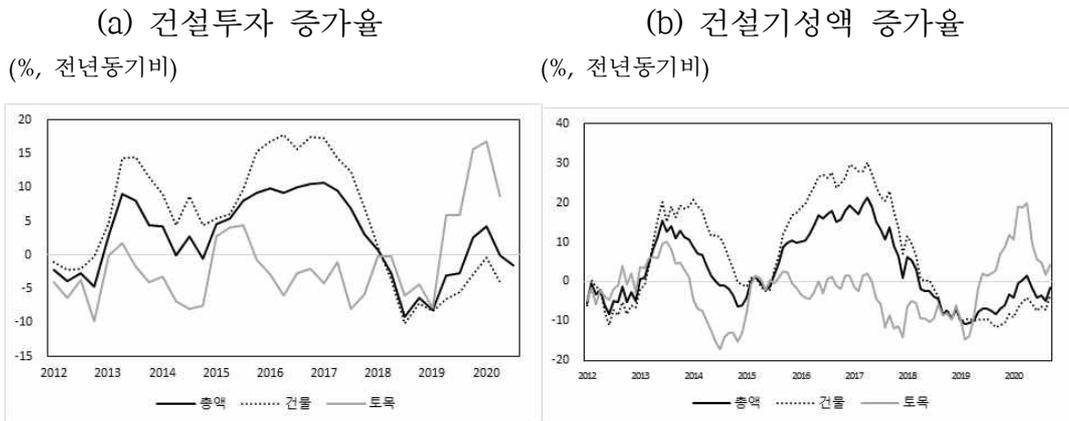
단위 : %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¹⁾	
전년 동기비	건설투자	-8.1	-3.0	-2.7	2.6	4.2	-0.1	-1.6	
	형태별	건물건설	-8.2	-6.5	-5.4	-2.8	-0.3	-4.0	-
		주거용 건물	-12.7	-11.8	-14.0	-9.0	-4.0	-6.9	-
		비주거용 건물	-2.4	-0.8	3.9	3.7	4.0	-1.3	-
		토목건설	-7.8	5.9	5.9	15.7	16.9	8.6	-
	주체별	민 간	-9.0	-6.9	-5.1	-3.2	-1.3	-2.7	
		정 부	-3.3	8.6	12.4	22.2	33.9	6.6	
전기비	건설투자	-0.7	2.9	-6.4	8.0	0.5	-1.5	-7.8	
	형태별	건물건설	-1.3	-1.0	-5.6	6.2	0.5	-4.5	-
		주거용 건물	-4.5	-2.2	-5.5	3.8	-0.2	-4.6	-
		비주거용 건물	2.1	0.2	-5.6	8.5	1.2	-4.5	-
		토목건설	0.8	13.1	-8.3	12.4	0.3	5.3	-
	주체별	민 간	1.3	-1.2	-5.6	3.6	1.2	-1.1	
		정 부	-8.4	19.9	-9.1	23.6	-1.9	-2.8	

자료 : 한국은행.

주: 1) 잠정치

〈그림 1-22〉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건설기성액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2021년 건설투자는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정부의 SOC 확대 정책 영향으로 토목을 중심으로 회복하여 전년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SOC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26조)로 편성되고, 노후 SOC 및 생활 SOC 관련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정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택의 경우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나 건물건설 투자 감소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 그린뉴딜 정책의 건물 에너지 효율과 환기 시스템 개선 사업 역시 건설투자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증가율과 부동산 심리지수가 5월 이후 상승한 것도 건설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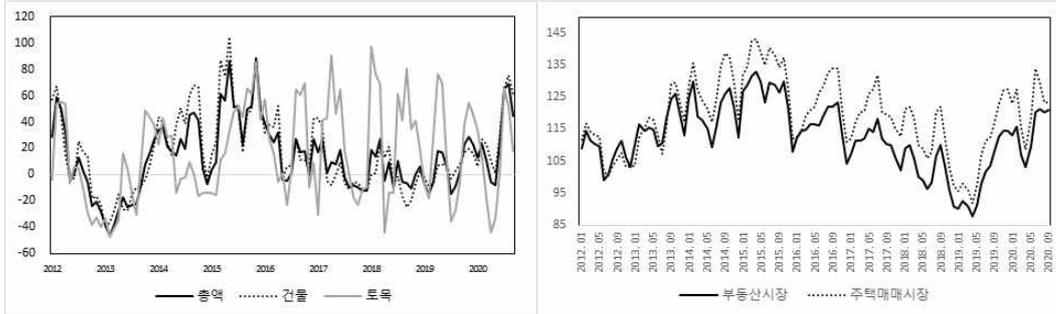
〈그림 I-23〉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a) 건설수주액 증가율

(b) 부동산 심리지수

(%, 전년동기비)

(기준=100)



자료 : 통계청, 국토연구원.

주 : 건설수주액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3) 수출입

□ 2020년 동향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감소한 후 점차 회복세

○ 연초에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으로 2분기에 급감한 이후, 하반기 들어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점차 감소세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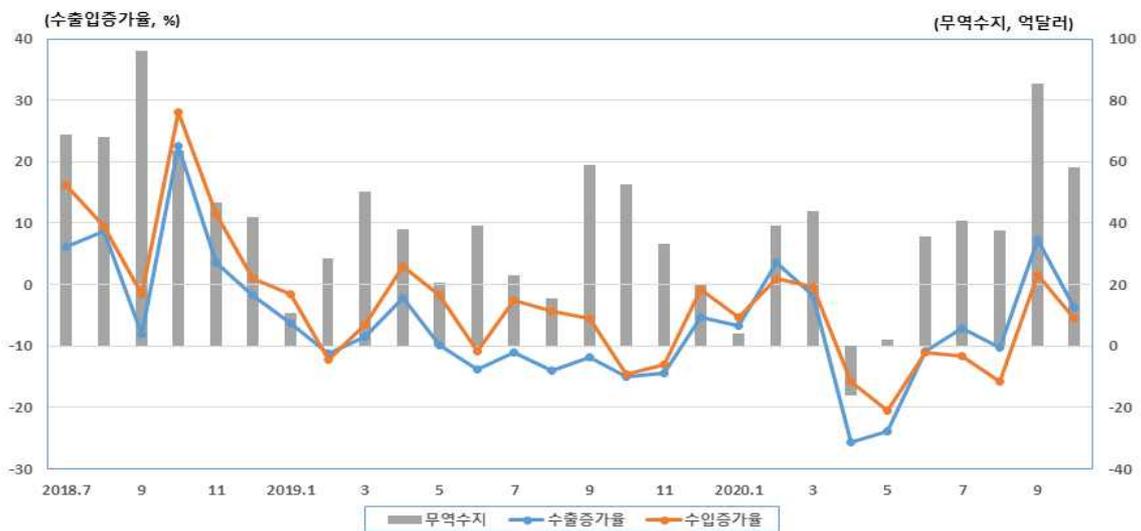
-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과 수요 급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2분기 -20%대에서 3분기에 한 자릿수로 대폭 축소

- 수입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의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이 대폭 줄어들며 감소세 지속

-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월비 8.2% 감소한 4,156억 달러, 수입은 8.7% 감소한 3,82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36억 달러의 흑자

* 수출(전년동기비, %) : ('19) -10.4 → ('20.1Q) -1.8 → (2Q) -20.3 → (3Q) -3.2
 * 수입(전년동기비, %) : ('19) -6.0 → ('20.1Q) -1.8 → (2Q) -16.2 → (3Q)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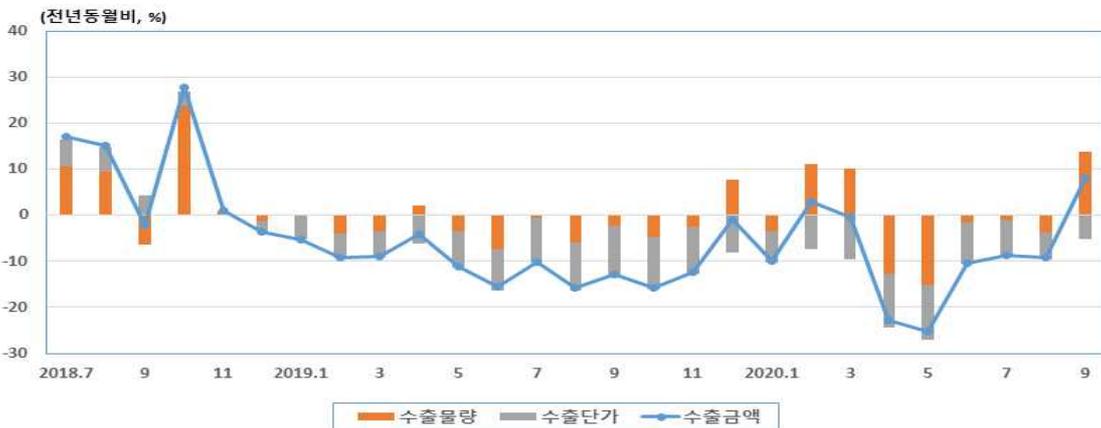
<그림 I-24>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출물량은 주요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2분기 대폭 감소한 후 3분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수출단가는 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하락세 지속
- 코로나 19 확산으로 2분기에는 수출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감소하여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3분기에는 수출물량이 회복세로 전환되며 수출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축소

〈그림 1-25〉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DB.

주 :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

- 산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부진과 단가하락 등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컴퓨터 등 ICT 품목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
- 석유제품·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감소 및 경기둔화, 설비증설 등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철강도 주요 선진국의 철강 수요산업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
- 조선도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인도 지연과 인도 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
- 자동차는 2분기에는 경제봉쇄로 인한 생산과 영업 차질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국산 SUV차량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점차 회복 중

- 반면, 반도체는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IT기업의 서버 증설과 모바일 수요 증가로, 컴퓨터도 비대면 산업의 확대에 의한 SSD 수요의 증가로 수출이 오히려 증가

〈표 1-13〉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수출증가율			수출비중		
	2018	2019	2020(1-10)	2018	2019	2020(1-10)
반도체	29.4	-25.9	2.3	20.9	17.3	19.5
일반기계	10.2	-1.9	-10.2	8.9	9.7	9.4
자동차	-1.9	5.3	-15.7	6.8	7.9	7.2
석유화학	11.9	-14.8	-18.6	8.3	7.9	7.0
철강	-0.7	-8.6	-16.0	5.6	5.7	5.3
석유제품	32.3	-12.2	-40.2	7.7	7.5	4.9
선박	-49.6	-5.3	-11.6	3.5	3.7	3.8
자동차부품	-0.1	-2.5	-22.7	3.8	4.2	3.5
디스플레이	-9.9	-17.0	-19.2	4.1	3.8	3.4
컴퓨터	17.2	-20.6	70.8	1.8	1.6	2.7
무선통신기기	-22.7	-17.6	-12.9	2.8	2.6	2.5
섬유류	2.5	-8.0	-15.5	2.3	2.4	2.2
가전	-18.3	-3.6	-3.2	1.2	1.3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선전하였으나, ASEAN·일본·중동·중남미 등 대부분 지역에 대한 수출은 두 자릿수 이상 대폭 감소
-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진정에 따른 경기 반등세로 대중 수출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대미 수출도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산업생산 및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감소폭 축소
- EU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붕쇄 영향으로 2분기 수출이 대폭 감소한 후 하반기 들어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향후 타격이 우려

- 반면, ASEAN·중동·중남미 등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

〈그림 1-26〉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입은 경기 부진, 유가 하락 등으로 원유 등 1차산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하였고, 소비재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입 증가로 소폭 감소에 그침

〈표 1-14〉 가공단계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2019		2020(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5,033	-6.0	3,434	-9.1	100.0
1차산품	1,168	-10	640	-27.4	18.6
(원유)	703	-12.6	341	-35.9	9.9
중간재	2499	-3.1	1,728	-8.1	50.3
자본재	653	-15.4	542	12.7	15.8
소비재	690	1.7	504	-2.2	14.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21년 수출 전망 : 경기회복과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 반등

- 2021년 수출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능력 강화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회복과 주요국 경기부양책의 효과, 기저효과 등으로 대폭 증가 전망
 - 중국과 ASEAN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글로벌 경기부양책 효과로 상반기 들어서 강한 수출 회복세 예상
 -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관리체제가 일상화될 것이 예상되는바, 이들 국가에서의 경제 회복세 역시 수출 증가 견인 전망
 - 2020년 역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반도체 물량의 점진적 회복세, 선박 인도 증가, 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바이오/헬스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반도체 장비 수입과 국제유가 회복세,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증가하겠지만, 위축된 수요부문의 더딘 회복세와 2021년까지는 지속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율이 수출보다는 다소 낮은 9.6% 전망
 - 2021년은 전체 교역규모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521억달러 전망

〈표 1-15〉 2021년 수출입 전망

단위 : %, 억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5,423 (-10.4)	2,406 (-11.3)	2,638 (-1.5)	5,044 (-7.0)	2,710 (12.6)	2,898 (9.8)	5,608 (11.2)
통관기준 수입	5,033 (-6.0)	2,296 (-9.1)	2,346 (-6.5)	4,642 (-7.8)	2,491 (8.5)	2,596 (10.6)	5,087 (9.6)
무역수지	389	110	292	402	219	302	521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II. 12대 주력산업 전망

1. 2020년 산업 동향

□ 수출 : 코로나 19로 대부분 산업 감소, 하반기는 감소세 둔화

- 2020년 12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반적인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요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원유가 하락, 경쟁 심화 등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9.9%나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4.8%로 다소 둔화
 - 최종 소비재 및 관련 산업으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나 섬유 등과 더불어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한 일반기계, 철강, 디스플레이, 원유가격 및 수요 하락과 연계되어있는 석유화학, 정유 등의 수출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
 -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 및 관련 경제활동이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한 데이터 저장을 위한 SSD를 포함하는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인도 지연, 수요 부족 등으로 상반기에 수출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 가전,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정상화되면서 하반기에 증가세로 반전
 - 가전, 반도체 등은 비대면 사회에 따른 수요 및 대기수요 실현 등이 반영된 것이며, 이차전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것임.
-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은 코로나 19로 세계 수요가 크게 위축된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이 크게 감소되고,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한 조선의 수출이 다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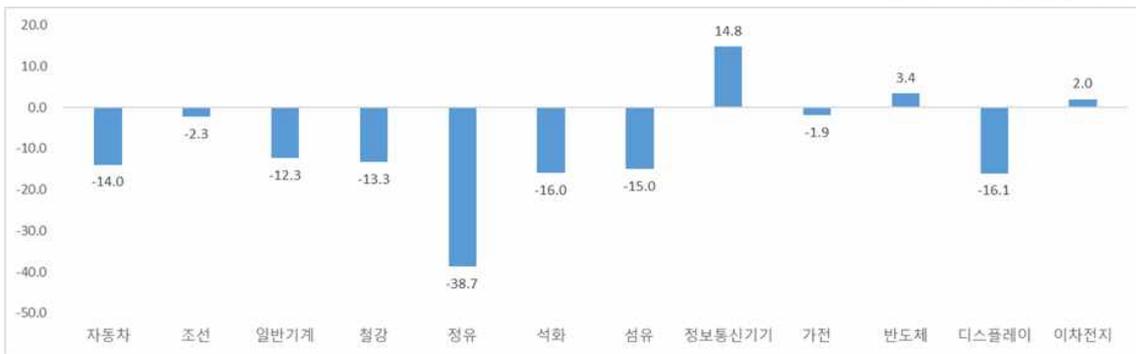
-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우리 수출시장의 경제활동이 정지되면서 자동차 소비 수요가 급감하고, 우리의 해외공장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반기의 감소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도 14%나 감소
- 현재 조선 수출 및 생산은 이미 주문이 이루어진 부분을 인도하는 것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수주는 9월까지 전년대비 65%나 감소한 수주절벽에 직면
- 일반기계는 코로나 19로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입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 전체로 12.3%나 감소
- (소재산업군) 상반기 소재산업 수출은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부족과 더불어 원유가 인하 등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22.2%나 감소
 - 철강은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공급과잉문제가 심각해져 수출 물량감소와 더불어 가격 하락이 동반되어 수출액이 13.3%나 하락하였지만,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 재개 등으로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다소 둔화
 - 정유제품은 항공유, 휘발유 등의 수출물량 감소와 더불어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수출금액은 38.7%나 큰 폭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 지속
 - 석유화학도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 생산활동 위축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단가도 하락하여 수출액이 16% 하락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제조업 생산 재개 등으로 감소 폭 둔화
 -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중심인 섬유산업의 수출은 소비재적 성격이 강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아 15%나 큰 폭 감소
- (IT산업군) 코로나 19로 공급과잉문제가 더 심각해져 수출이 크게 감소

한 디스플레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가전,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상승세 전환, 데이터 저장과 관련한 SSD 수요의 큰 폭 증가로 인해 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

- 소비 위축 및 물류 등의 애로로 상반기 16%나 감소했던 가전은 하반기 비대면 사회 상황 및 대기 수요 실현 등으로 11.1%나 상승하여 작년 대비 1.9% 감소하는데 그침.
- 정보통신기기의 상반기 수출은 코로나 19로 스마트폰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비대면 사회 도래에 따른 데이터센터용 SSD 수출이 크게 늘어 14.8%나 급증

<그림 II-1> 2020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추정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달러 표시 가격 기준

-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감소하였지만, 가전 회복, 데이터센터용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하반기는 8.2%나 증가하여 2020년 전체로는 3.4% 증가
-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해 경쟁이 더 격화되면서 수요 위축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동반하여 하반기의 감소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수출액이 16.1% 하락
- 이차전지 수출은 상반기 코로나 19로 해외 수요 제품 공장 및 해외 이차전지공장 등의 가동 중단으로 5.7% 감소했지만, 수요 증대에 따른 친

환경자동차 생산 증가로 이차전지 수출은 하반기 9.7% 증가하여 2020년 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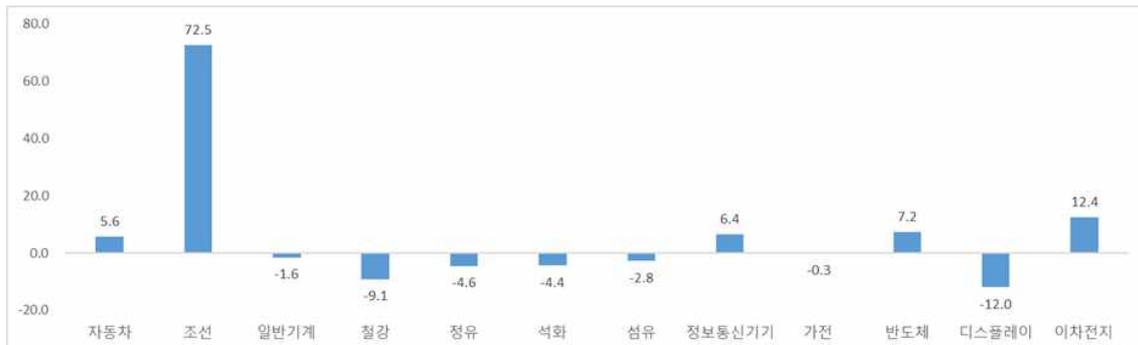
□ 내수 : 코로나 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 다수의 산업에서 내수가 감소했지만, 그 감소 폭이 크지 않고, 일부 산업은 내수가 오히려 증가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은 수요산업의 수출 수요가 위축되어 내수도 감소하였고, 가전은 국내 판매가 줄었지만, 하락 폭이 크지 않음.
 - 반면, 다수의 신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루어진 자동차,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진 조선, 수요산업의 수출이 확대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신규 수요가 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등은 내수가 오히려 크게 증가
- (기계산업군) 자동차나 조선은 내수 진작책 등으로 내수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수요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반기계산업은 수요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내수가 위축
 -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신차효과와 내수진작책으로 자동차 내수는 3월부터 이미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 5.6%나 성장
 - 조선산업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발주된 초대형컨테이너선 등 다수의 선박이 본격 인도됨에 따라 내수가 72.5%나 폭발적으로 증가
 - 1/4분기까지 기계류의 내수가 증가했지만, 주요 수요산업의 수출이 위축되기 시작한 2/4분기 이후 내수가 감소하여 상반기 5.2%가 감소하여 하반기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2020년 1.6% 감소
- (소재산업군) 소재는 주요 수출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수출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소재 내수도 위축

-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의 생산감소와 더불어 건설경기의 약화로 2020년 철강 내수가 9.1%나 감소
- 산업용 정유제품 수요는 큰 변화가 없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송용, 특히 항공유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정유의 내수는 4.6% 축소
- 석유화학 내수는 자동차,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4.4% 감소
-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의류 소비 위축과 더불어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의류용 및 산업용 소재의 판매감소가 이루어져 섬유 내수는 2.8% 감소

〈그림 II-2〉 2020년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추정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IT산업군)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IT산업 내수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등으로 비교적 양호
 - 가전은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판매가 감소한 반면, 온라인 판매가 늘고, 가전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으로 내수가 -0.3%의 낮은 감소 폭 기록
 - 코로나 19로 관련 소비가 늘면서 정보통신기기의 내수도 6.4% 증가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내 서버용 및 관련 개인용 수요의 증가와 더

불어 SSD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반도체 내수는 7.2%의 증가 기록

- 전반적인 대형화 및 고급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산업의 위축 등으로 디스플레이 내수는 12%나 감소
- 전기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차전지의 내수도 12.4%나 큰 폭 증가

□ 수입 : 코로나 19에도 내수와 마찬가지로 낮은 하락 폭 기록

-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도 존재하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증가로 일부 산업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12대 산업 전체 수입은 5.4% 감소하는 데 그침.
 - 내수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 조선 등의 수입이 늘었고,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이차전지도 증가
 - 반면, 수요산업의 생산과 연계되어있는 대표적인 소재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섬유, 단가하락과 우리 해외생산과 관련 있는 디스플레이 등은 수입이 비교적 크게 감소했고, 일반기계, 철강, 정유 등도 감소
- (기계산업군) 내수에서 호조를 보인 자동차와 조선의 수입이 증가했지만, 일반기계의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로는 2% 증가하는데 그침
 - 일본차에 대한 불매운동, 자동차 생산감소에 따른 부품 수입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내수의 증가 등에 의해 1.9% 성장
 - 조선도 선박용 부품이나 엔진의 수입은 감소했지만, 유조선 및 벌크선 등 화물선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48.7%의 높은 성장세 기록
 - 코로나 19로 인해 수요 위축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부품을 중심으로 2020년 일반기계 수입은 1.8%가 감소했으나 수요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는 증가세로 전환

-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 수입은 가격경쟁력에 의한 수입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19.1%나 감소
 - 철강 수입은 환율, 전반적인 단가 인하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의해 수입 물량이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4월 이후에는 단가하락도 수입액 감소에 기여하여 2020년 전체로 27.6%나 감소
 - 정유는 수입 물량이 석유화학 원료를 중심으로 상반기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하반기의 수입 물량 감소 등으로 수입금액이 21.1%나 감소
 - 석유화학은 국내 수요 감소로 수입물량이 줄고, 단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체 수입액도 17.9% 감소
 - 섬유는 수입단가가 다소 하락하였지만, 의류 및 섬유소재의 수입 수요가 줄면서 수입액도 7.0% 하락
- **(IT산업군)** 디스플레이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가전,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수입이 증가하여 IT산업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1.4% 증가
 - 코로나 19에 따른 해외생산 차질과 통상마찰 등으로 가전 수입은 상반기 5.6% 감소했지만, 하반기 큰 폭 증가로 2020년 1.6% 증가
 - 주로 시스템반도체 위주로 수입하는 반도체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수요산업의 회복으로 수입이 3.2% 증가
 - 정보통신기기는 휴대폰부품과 PC부문이 감소한 반면, 휴대폰과 5G 통신장비, SSD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3% 증가
 - 하반기에 해외생산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차전지 수입은 26.2%나 큰 폭 증가

<그림 II-3> 2020년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가율 추정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달러 표시 가격 기준

□ 생산 :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 감소로 주력업종 위축

○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수요의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은 대부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일부 품목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재의 물량 기준 생산은 단가 인하로 수출액에 비해 감소세가 완화

-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는 코로나 19에 따른 데이터용 내수 및 수출 등이 반영되어 생산이 비교적 크게 성장하였고, 이차전지도 수출 증가로 하반기 성장세로 전환

○ (기계산업군) 수출 부진으로 자동차의 생산이 가장 크게 줄었고, 저가격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어 조선 생산물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일반기계도 생산이 다소 감소

- 자동차는 코로나 19 초기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해외 수요 부족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상반기 생산도 크게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내수 증가 및 수출 감소세 둔화 등으로 2.2% 증가하여 2020년 9.1% 감소

- 코로나 19로 중국 블록공장의 생산 차질, 인력이동 제한으로 3~4월 생산이 크게 감소했지만, 5월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조선 생산은 8.6% 감소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위축 등으로 수출 감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 수주물량의 생산, 수출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장비의 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 감소율은 -2.8%로 크지 않음
- **(소재산업군)** 가격 하락으로 물량 기준 소재산업 판매감소는 크지 않아 생산감소도 수출액에 비해 적은 수준
 - 하반기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내수 판매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2020년 철강 생산도 5.2% 감소
 - 정유의 경우 정제설비 고도화로 생산능력은 확대되었지만, 내수 감소 및 정제 마진 하락에 따른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정기보수 확대로 생산물량 7.6% 감소
 - 석유화학 생산물량은 일부 생산시설(롯데케미컬 대산공장) 가동 중단, 수요 감소 등으로 0.7% 감소
 - 섬유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하여 생산이 4.4% 감소

〈그림 II-4〉 2020년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추정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IT산업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각각 수출 및 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생산도 비교적 크게 성장했고, 가전 및 이차전지 등은 하반기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경쟁력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큰 폭 감소

- 2020년 수출 및 내수 증가에 힘입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각각 13.8%, 7.9%, 1.3% 증가했고, 가전은 1.5%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디스플레이는 11.6%나 감소

2. 2021년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1) 대외여건 변화 : 세계수요는 일정부분 회복되나 경쟁 여건 악화

□ 세계수요는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친환경 관련 신수요 등으로 호조

○ (세계수요 여건) 2021년에도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일정부분 회복이 이루어지고 올해의 기저효과에 의해 세계수요는 모든 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수요 하락이 장기적 추세인 철강이나 항운 등의 정상화가 늦어져 수요에 영향을 받는 정유 등의 회복세는 다소 제한적
-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장기적인 추세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측면에서 2021년 세계수요도 보다 긍정적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코로나 19 등 전염병 대응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의약 및 위생 관련 석유화학, 섬유 등, 비대면 관련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세계수요도 지속 증가
- 2021년 세계수요와 관련하여 가장 부각되는 부문이 친환경관련 이슈로 환경규제로 조선(발주)이나 이차전지(친환경자동차관련) 등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
- 자동차도 친환경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기존 내연기관차량의 대체여서 전체 수요 증대에는 제한적
- 디스플레이는 전체 시장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LCD에서 OLED 등으로 수요 전환이 이루어져 시장 구조가 변화할 전망이고, 가전 등의 고급화도 지속

<표 II-1> 주요 산업을 둘러싼 세계수요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시장 기저효과에 따른 수요회복	☀☀
	EU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기동력차 수요 증가	∞
조선	세계 경기(선복량 증가보다 해상물동량의 빠른 회복)	☀
	기저효과(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프로젝트의 정상 추진)	☀
	환경규제의 강화(EU NOx 규제, ETS, IMO EEDI/EEXI 등)	☀
일반기계	제품가격(불황으로 저선가 상황이어서 저가 발주 수요 확대)	☀
	세계 경기 및 수요 제조업 생산 동향(PMI 지수 회복세)	☀
	기저효과(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투자 추진)	☀
철강	인프라 투자 정책(중국 양신일중 뉴딜정책, 미국 바이든 공약)	☀
	장기적 추세(중국 장기성장률 하락 및 수요 위축)	☂
	세계 경기 호전	☀
정유	기저효과(감소된 수요의 회복)	☀
	신흥국 중심 수요 확대	☀
	수송용 석유제품 중심 수요 회복	∞
석유화학	기저효과(감소된 수요의 회복)	☀☀
	중국, 아세안 경기가 호전되나 품목 간 시황 격차 확대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의 발생(비대면 제품)	☀
섬유	세계 경기 회복세	☀
	수요산업의 생산 증가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 발생(마스크, 방진복, 섬유제 위생용품)	☀
가전	세계 경기 회복세	☀
	제품의 고급화, 스마트화	☀
정보통신기기	세계 SSD 시장 규모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청정가전, ‘집안’에 대한 지출 증가)	☀
	수요산업(5G 이동통신서비스 등) 동향	☀
반도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의 발생(비대면·온라인 서비스)	☀
	지속적 장기적 성장 추세	☀☀
	세계 경기 회복	☀☀
디스플레이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제품가격	☀
이차전지	스마트폰 OLED 채택률 상승(시장 구조 변화)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친환경부문의 투자 확대 및 환경규제 강화, 수요 촉진 정책	☀
	화재 등 안전 문제 발생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주요 우리 수출시장 대부분이 회복세를 기록하겠지만, 회복 강도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큰 폭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 자동차는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은 섬유 및 가전 등에서 빠른 회복세를 기대

- 반면,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양호하여 기저효과가 적고, 우리와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기계,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다소 비관적
- 특히, 반도체의 주요 수출지역인 홍콩 시장은 정치적 문제 등에 따른 제재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표 II-2〉 주요 수출 대상국의 2021년 수요 전망

	국가	비중 ¹⁾	영향	국가	비중	영향	국가	비중	영향
자동차	미국	33	※※	EU	19	※	러시아	5	※
일반기계	중국	25	☹	미국	20	※	베트남	10	☹
철강	선진국	35	※	동남아	30	※	남미	20	※
정유	중국	20	※	일본	12	☹	아세안	15	※
석유화학	중국	50	※	아세안	15	※	미국	5	※
섬유	베트남	22	※※	중국	13	☹	미국	11	☹
가전	미국	40	※	중국	8	☹	일본	7	☹
정보통신기기	미국	28	※	중국	26	☹	베트남	14	☹
반도체	중국	39	※	홍콩	23	☹	베트남	11	※※
디스플레이	중국	50	※	베트남	50	※	-	-	-
이차전지	중국	16	※	독일	14	※	미국	12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2019년 기준)

□ 글로벌 경쟁 여건은 대체적으로 악화 예상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대부분 업종에서 중국의 부상이 2021년에도 우리의 해외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 대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은 중국의 자급률 향상이나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등으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

<표Ⅱ-3> 주요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구미 중견업체의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판매 부진에 따른 재정 리스크 증대	☀
	일부 해외업체의 합병 등에 따른 생산설비 조정	∞
	주요 경쟁업체들의 전기차 라인업 확충	☹☹
조선	주요국의 산업 정책(중국, 일본의 자국 발주 확대)	☂
	환경규제의 강화(LNG연료 추진선 및 친환경 선박 선호)	☀
	코로나에 따른 GVC 변화(글로벌 해운사의 국내 조선사 선호 증가 가능성)	☀
일반기계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
	주요국의 산업 정책	☂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철강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
정유	중국 자급률 증가, (경질유) 수출 확대	☹☹
	국산 제품 고도화 설비 확대를 통한 원가절감	∞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신규 정제설비 확대, 가동률 상향 조정	☂
석유화학	주요 수출국 내 중동, 아세안산 시장점유율 견조한 상승세	☂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에탄 대비 원가경쟁력 확보)	☀
	중국산 제품의 동아시아 시장 유입으로 초과 공급 초래	☂
섬유	경쟁국 섬유소재 및 제품 업그레이드에 따른 경쟁 심화	☂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
	해외생산 증가	☂
가전	스마트홈 서비스 및 플랫폼 기업의 성장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대형세탁기 세이프가드 종료, 대선 결과)	☀
	미중 분쟁에 따른 영향(중국 브랜드의 미국 진출 어려움)	☀
	해외생산 증가	☂
정보통신기기	경쟁국 신제품 출시(미국과 중국 5G폰·폴더블폰, 5G장비, PC 등)	☂
	국산 신제품 출시(5G 플렉서블폰, SSD 등)	☀☀
	코로나 영향(비대면·온라인 수요 대응역량)	☀
	해외생산 증가	☂
반도체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 완화	☀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의 경쟁력 유지	☀
	파운드리 기술경쟁력 향상	☀
디스플레이	해외 OLED 공장 양산 규모 확대	☂
	해외 LCD 공장 매각	☂
이차전지	품질 수준 향상	☀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소재 구성의 변화)	☀
	주요 시장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책 도입 및 자국 기업 등장	☂
	해외생산 증설 및 수출 안정화	☂

주: 전년대비 우리 산업의 경쟁력, ☹☹ 경쟁력 큰 폭 약화, ☂ 경쟁력 약화, ☹ 경쟁력 다소 약화, ∞ 경쟁력 다소 개선, ☀ 경쟁력 개선, ☀☀ 경쟁력 크게 개선

- 조선, 일반기계, 철강, 이차전지 등은 자국 산업의 육성 및 보호가 우리 경쟁 여건을 악화
 -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은 지속적으로 해외 생산이 늘어 우리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는 주요 경쟁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고, 일부 업종에서는 신제품 등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부분도 존재
 - 반도체산업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완화되고, 메모리반도체에서의 경쟁우위 지속, 파운더리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쟁여건도 개선
 - 우리 이차전지산업은 소재 구성의 혁신을 통해 단가인하를 추진하여 경쟁력이 일부 상승
- (해외생산 전망) 주요 업종의 해외생산 능력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올해 정상가동이 힘들었던 기존 해외공장의 생산이 2021년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II -4〉 주요 산업의 해외생산 하반기

	해외생산기지(생산 전망)
자동차	중국(※) 미국(※※) 멕시코(※※) 동유럽(※) 터키(※) 인도(※※)
조선	중국(∞) 베트남(☹)
일반기계	중국(∞) 인도(※), 미국(※)
철강	중국(∞) 미국(∞) 인도(∞) 남미(∞)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 미국(☹) 우즈베키스탄(∞)
섬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가전	아세안(☹) 동유럽(∞) 중국(☹) 북미(☹)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반도체	중국(☹) 미국(∞)
디스플레이	중국(☹)
이차전지	중국(☹) 미국(☹) 유럽(☹☹)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자동차는 미국, 멕시코 등 북미지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 전망
 - 이차전지도 유럽지역 생산이 크게 늘고, 중국, 미국 등의 공장도 생산이 늘어 우리 수출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조선은 베트남 공장이, 석유화학은 미국 공장이, 섬유는 중국 공장이, 가전은 중국 공장이, 정보통신기기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공장이 올해에 비해서는 부진할 전망
- (제품 단가 변화) 올해는 수요 침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제품 단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내년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제품의 고급화 등으로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이 예상

<표 II -5> 주요 산업의 단가 관련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SUV, 친환경차 판매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	∞
조선	후판 등 기타 원자재가격의 변화	☀
	시황 회복으로 선가 상승	☀
	LNG연료추진이나 친환경설비 장착	☀
철강	환율의 변화(원화 절상)	☂
	기타 원자재가격의 변화	☀
정유	유가 변화(제품 단가 상승)	☀
	수요회복 및 공급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
	경질유 비중 확대	∞
석유화학	유가의 변화(단기적 원가경쟁력 회복, 중장기적 제품가격 하방 압력)	☀
섬유	유가의 변화	☀
	온라인 거래 확대	☂
	글로벌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력	☂
가전	제품의 고급화	☀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
정보통신기기	세계 스마트폰 평균가격	☀
	세계 SSD 판매가격	☀
	제품의 고급화	☀
반도체	수급의 변화	☀
	제품의 고급화	☀
디스플레이	노트북, 모니터 시장 확대	☀
	중국 대형 LCD 공장 양산 확대	☂☂
이차전지	구성변화에 따른 원자재 비용의 하락	☂
	공급 확대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 -5%, ☁ -5~0%, ∞ 0~5%, ☀ 5~10%, ※※ 10% 이상

- 정보통신기기나 반도체는 수급변화 및 고급화 등에 힘입어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자동차도 제품의 고급화가 가격 상승요인
- 석유화학도 정유 수준은 아니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단가 상승이 예상
- 그러나 디스플레이나 이차전지는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특히 이차전지는 소재 구성의 변화에 따른 비용 하락으로 가격 인하 요인 존재

(2) 국내 여건의 변화

□ 국내 수요, 공급능력 등은 다소 개선되지만, 경쟁 여건은 다소 악화

- (국내 수요 여건) 소비 촉진 정책에 의해 올해에 수요가 실현되었던 자동차, 가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이 수요산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국내 수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자차 이용 수요 증가나 해외 여행 경비 이전 효과 등이 있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 역 기저 효과 등으로 내수 여건 악화 전망
 - 가전도 수요 촉진 정책 종료, 주택 거래량 감소 등으로 내수 여건 악화
 - 디스플레이는 내수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소재부품 내수가 국내 LCD 생산감소 등으로 악화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등은 수요산업의 호조 및 올해의 기저효과로 인해 내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산업은 장기적 추세로 볼 때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이지만, 5G 투자 확대 및 고도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의 영향 등으로 수요여건이 다소 개선

- 안전에 대한 우려가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전기자동차의 생산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수요 여건 개선

<표Ⅱ-6> 주요 산업의 국내 수요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 효과	☂
	자차 이용 수요 증가	☂
	해외여행 경비 이전효과	☂
일반기계	기저효과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철강	국내 경기(코로나의 영향 포함)	☀
	기저효과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정유	국내 경기(발전용, 수송용 제품 수요회복)	☂
	기저효과	☀☀
	제품가격(유가 인상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상승)	☂
석유화학	국내 경제 성장률(둔화 추세 완화)	☀
	국내 수요산업 생산 전망(자동차, 의류, ICT 증가 전망)	☀
	기저효과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의 발생 여부(비대면 제품용)	☀
섬유	국내 경기(코로나의 영향 포함)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수요 촉진 정책 (정부의 경기 활성화 및 내수 진작 정책) ?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의 발생 여부	☀
가전	제품가격(고급화, 스마트화)	☀
	수요 촉진 정책(구매비용 환급사업, 각종 지원금 축소)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청정가전, 건강 가전, 스마트 가전 등)	☀
	주택 거래량(상대적 감소)	☂☂
정보통신기기	장기적 추세 및 사이클(국내시장의 성숙 정도)	☂
	5G 전국망 및 고도화 투자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요의 발생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
반도체	국내 경기(코로나의 영향 포함)	☀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디스플레이	LCD 생산 축소로 인한 소재부품 수요감소 지속	☂☂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틈새시장 수요 확대	☀
이차전지	수요산업의 생산 동향	☀☀
	친환경부문의 투자 확대 및 환경규제 강화, 수요 촉진 정책	☀
	화재 등 안전문제 발생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국내 경쟁 여건 변화) 국내시장에서 중국 제품 및 해외생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경쟁 여건이 악화되겠지만, 신제품 출시 및 국내 생산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되는 측면도 존재

- 고급차 라인업 확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동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 여건 개선
- 고도화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유 및 이차전지, 파운드리 기술력이 향상되는 반도체, 저전력 패널 및 고급 패널 수요 확대 등에 따른 디스플레이 등도 국내 경쟁 여건 개선
- 중국 제품 등의 진출이 예상되는 가전, 이차전지 등은 국내 여건 악화

<표 II-7> 주요 산업의 국내 경쟁 여건 변화 전망과 영향

	주요 여건	영향 크기
자동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
	전용 플랫폼 활용 전기차 출시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	☀
일반기계	납기 준수	☀
	핵심부품의 조달	☀
	코로나 19로 지연된 중국발 부품의 대체 수요	☹
철강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변화(수입 제품 대비)	☂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재 대응	☀
정유	고도화 설비 위주의 투자 확장	☀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	☀
	국산 신제품 출시(저유황 선박유 및 운할유)	☀
석유화학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변화(에탄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
	중국 등 여타국의 제품 진출(중저가 범용제품 중심 수입 확대)	☂
섬유	국산 신제품 및 모델 출시	☀
	중국, 베트남 등의 수입제품 대비 가격 열위	☂
가전	중국 등 여타국의 제품 진출	☂
정보통신기기	수입 신제품 출시(미국 5G폰, 5G장비, PC 등)	☂
	국산 신제품 출시(5G 플렉서블폰, 노트북, SSD 등)	☀☀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 변화(수입제품 대비)	☀
	중국 스마트폰 및 PC 제품의 국내 진출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의 경쟁력 유지	☀
	파운드리 기술경쟁력 향상	☀
	팹리스는 시장점유율이 낮고 기술 경쟁력이 약함	☹
디스플레이	저전력 패널 수요 확대	☀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	☀
이차전지	설비 고도화에 대한 투자	☀
	중국 제품의 국내 진출	☂

주: 전년대비, ☹☹ 매우 부정적, ☂ 부정적, ☹ 다소 부정적, ☺ 다소 긍정적, ☀ 긍정적, ☀☀ 매우 긍정적

○ (공급능력) 2021년 설비투자는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올해 대비 대체로 양호

- 올해에 이어 2021년에도 반도체 투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이고, 고도화 투자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의 투자가 증가

〈표 II-8〉 주력산업의 2021년 설비투자 전망 기상도

	2020	2021
자동차	☂☂	☀
조선	☁	☁
일반기계	☁	☁
철강	☀☀	☀
정유	☀☀	☁
석유화학	☁	☀
섬유	☂	☁
가전	☁	☁
정보통신기기	☁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이차전지	☀	☀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3. 2021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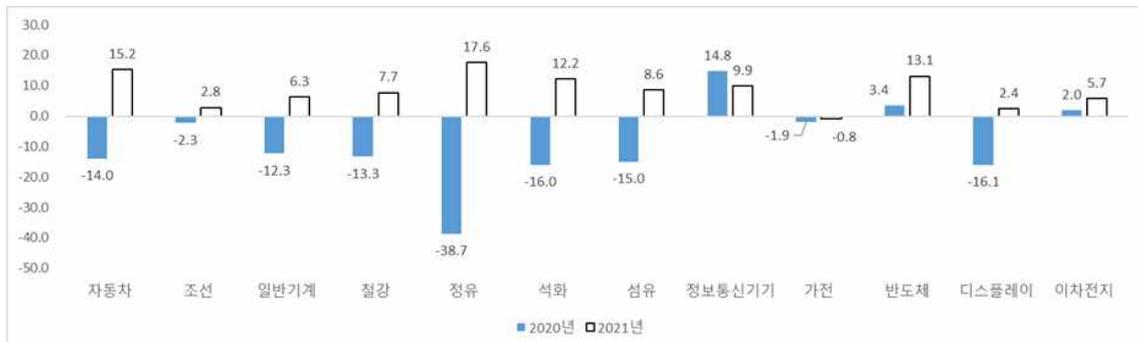
□ 수출: 12대 산업, 기저효과로 10.6% 증가 예상되나 2019년 수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 2021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고, 기저효과가 큰 상반기에 높은 성장세 전망

- 2021년은 올해에 비해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지만, 세계 수요가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심화, 자국 산업 보호 경향 심화 등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최종 내구소비재로 경기에 민감하여 올해 수출이 크게 감소한 자동차,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정유, 석유화학 등은 10% 이상의 큰 폭 상승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의 증가세와 더불어 비교적 높은 수출 상승 전망
- 수요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일반기계, 철강 등도 수출 증가세를 구현하지만, 중국 등과의 경쟁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

〈그림 II-5〉 2021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디스플레이는 올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여 2021년 성장세를 보이는 하겠지만, 2.4%의 낮은 증가율 기록
 - 해외생산 중심의 이차전지는 해외 생산기지가 안정화되면서 해외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은 제한적 증가
 - 대부분 산업이 올해 상반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커서 2021년 상반기의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
- (기계산업군) 올해 감소 폭이 컸던 자동차,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2021년 9.8%의 증가율 전망, 자동차의 기저효과가 컸던 상반기에 15.9%의 높은 증가율 기록
- 자동차는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상반기에 31.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이에 힘입어 2021년 15.2% 증가율 기록 전망
 - 조선도 올해 인도가 연기된 부분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에 6.7% 수출이 증가 될 전망이고, 하반기에는 올 하반기 인도 물량이 많아 1.0% 감소하여 2021년 전체로는 2.8%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도 위축되었던 올해의 세계 수요가 회복되면서 2021년 우리 수출도 6.3% 증가할 전망이지만, 중국 등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 격화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전망
- (소재산업군) 올해 수요 물량감소와 더불어 가격 하락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여 2021년 수출액 증가율은 1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겠지만,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로 2019년 수준에 크게 미달
- 경기회복 등으로 2021년 철강 수출은 7.7%의 증가율을 보이겠지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가격 인하와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가장 심하게 겪은 정유산업은 2021년 17.6%의 매우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지만, 여전히 낮은 유가 수준과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수요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 수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석유화학은 수요회복이 이루어져 12.2%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여전히 낮은 유가 등의 원인으로 2019년 수출 수준 회복이 힘들 듯
- 추세적으로 수출이 위축되던 섬유도 올해 큰 폭 수출 감소의 기저효과로 2021년 수출은 8.6%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겠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2019년에 못 미치는 수준
- **(IT산업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올해 성장세를 기록했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2021년 IT산업군의 수출은 10.1% 증가 전망
 - 가전은 하반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 2021년에도 0.8%로 소폭 감소할 전망, 이는 코로나로 가전 수요가 확대되는 경향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외생산 확대, 중국과의 경쟁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양상
 - 5G의 본격화, 비대면 사회의 지속 등으로 통신기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대외 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어 2021년에도 9.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 기록 전망
 - 대규모 투자로 공급 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은 13.1% 증가할 전망
 - 해외생산 확대 및 중국기업의 부상으로 LCD에서의 부진이 계속되겠지만, OLED로의 전환 가속화,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 등으로 2021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2.4% 증가 예상

〈표 II-9〉 2021년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주요 요인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성 높은 신차 투입 • 코로나19로 이연된 수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 축소 • 원자재 의존국 수요 회복세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 증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수출물량의 인도 연기 • 가스 운반선 수출 증가 내수 물량보다는 수출물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선, 탱커 수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량 중 내수 보다는 수출물량이 많고, 가스 운반선 수출 증가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기저효과 • 국내 플랜트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계 부품류 수요증가 •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프라 경기 부양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 세계 교역의 더딘 회복으로 글로벌시장 내 수주 경쟁 치열 • 유럽 및 일본 제조업의 더딘 회복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기저효과와 주요국의 인프라 경기 부양 기조로 전년비 6.3% 증가하나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은 어려움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기 회복 •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투자 확대 • 수출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글로벌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요인이 더 우세하며 기저효과 감안시 2020년 대비 상승 예상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 신규 증설계획 축소에 따른 공급과잉 일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신규 정제설비 가동 및 가동률 상향 조정 • 중국의 수출 확대에 인한 아시아 지역 내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가 회복 및 공급과잉 완화에 따른 물량 확대에 17.3% 증가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족 제품 수요 증가 • 주요 수출국 전방산업 경기 호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간원료(PX) 생산 설비 증설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 국내 석유화학 시장 하향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유분과 3대 유도품 중심 증가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 • 마스크 등 방역제품 수출 확대 • 한류기반 의류 수출 확대 • 비대면 온라인거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 심화 • 수출단가 약세 • 보호무역주의 강화 • 환경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섬유 수출 회복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성장률 회복 • 세계 시장 수요 반등 • 제품가격(수출단가)상승 • 가전 소비지출 확대 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생산 증가 • 중국과 경쟁 심화 • 해외 플랫폼 영향력 강화 • 소비심리 위축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심화에 따른 해외생산 증가 지속으로 감소요인이 다소 우세하여, 수출 감소 전망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5G 서비스 본격화 • 비대면 수요 확대 •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 신제품 출시 (5G 폴더블폰, SSD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재확산과 수요회복 지연 • 해외생산 확대 • 미국과 중국과 경쟁 심화 • 제품교체 주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 회복, 5G 비대면 수요 확대에 증가 • 미중 분쟁은 변수 전망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회복 • 비대면 사회 정착 • 대규모 투자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의 대유행 재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반도체 수출은 호조로 전망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OLED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패널 가격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중심으로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증가 •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 해외공장 생산 확대	성장하여 수출 증가 전망
이차전지	• 해외생산설비의 공급물량 부족	• 해외생산설비의 수출 안정화	• 해외생산설비의 공급물량 부족분에 대한 국내 대체 생산 발생으로 수출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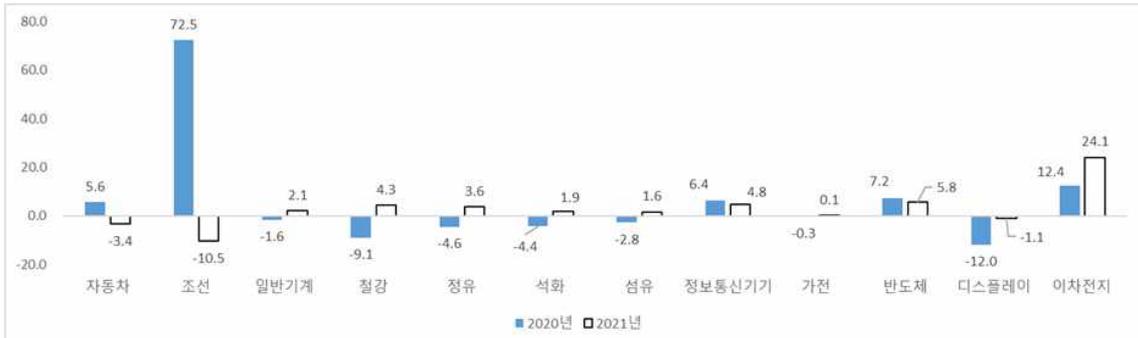
□ 내 수 : 대부분 산업이 증가세를 기록하나 제한적 성장세

○ 올해 내수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아 2021년 증가도 제한적

- 내수 진작책 등으로 올해 내수가 증가했던 자동차, 조선 등은 2021년 내수가 감소세를 기록하고, 디스플레이는 약간 감소하는 수준
- 반도체가 5.8%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가전 등 대부분 산업이 5% 미만의 증가세 전망

<그림 II-6> 2021년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기계산업군) 올해 부진했던 일반기계의 내수가 다소 증가하지만, 자동차와 조선은 올해의 높은 증가세로 역기저 효과 발생

- 2021년 자동차 내수는 대기수요 기실현, 경기 부진 지속, 내수 진작책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자차 이용 수요 증가, 해외 여행경비 이전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3.4% 감소

- 조선산업은 올해의 폭발적 증가로 해운 재건과 친환경 선박 확보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10.5% 감소 전망
 - 정부의 SOC 투자 기대와 반도체 설비투자 지속 확대 등으로 일반기계 내수는 2.1%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2020년 소재산업군은 전방산업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내수가 대부분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2019년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
- 장기적인 둔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철강 내수는 올해 큰 감소로 2021년 4.3% 증가할 전망
 - 정유는 수송용 및 석유화학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여 내수도 3.6% 증가하여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과 일부 화학소재의 국내 생산 비중 증가 기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9%) 전망
 - 섬유산업은 민간소비, 수요산업의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장기적인 둔화추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1.6% 증가
- (IT산업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IT산업군의 내수는 2021년에도 비교적 양호
- 가전 내수는 수요촉진 정책 완화, 주택경기 위축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가전 소비지출 확대 트렌드 등으로 0.1% 정도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5G시장 성장, 신제품 출시, 비대면 온라인 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2021년 내수가 4.8% 성장 전망
 - 반도체 내수는 SSD용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의 높은 성장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21년 연간으로 5.8% 증가 전망

- 소재부품 중심인 디스플레이 내수는 올해 큰 폭의 하락에 이어 2021년에도 국내 LCD 생산 위축 등으로 1.1% 감소
- 이차전지 내수는 전기자동차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에도 24.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표 II-10> 2021년 주력산업의 내수 변화 주요 요인

	증가(공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차이용 수요 증가 • 해외여행 경비 이전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전년 실적회조에 따른 역기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수요 실현과 경기 부진 지속으로 감소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 재건을 위한 국내 해운사 물량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에 워낙 많은 선박이 건조되어 규모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 재건과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2020년에 워낙 많은 물량이 건조되어 연간으로는 감소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 • 반도체 주도 설비투자 확대 지속 • 제조업 전반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재고 소진 필요성 • 국내 경기의 제한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경제성장 기대감으로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기대되나 제한적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생산 증가, 경기부양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수요증가 둔화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요 상승 예상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요 회복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인 나프타 및 LPG의 수요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요회복 및 전년도 기저효과로 4.9% 확대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방산업 경기 회복 기대 • 핵심 화학소재 국산화 전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확산세 감소에 따른 위생용품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 수요의 점진적 회복으로 전년 대비 견조한 증가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의류, 의류용 섬유소재, 부자재 수요 확대 • 주요산업의 생산 회복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확대 • 비대면 온라인거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 등 민간소비 제약 • 임금상승률 둔화 등 가처분소득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 국내 산업 활동 회복으로 섬유 내수 확대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성장률 회복 • 제품가격 상승 • 가전 소비지출 확대 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촉진 정책 완화 • 주택 거래량의 상대적 감소 • 소비심리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증가요인이 우세하나 감소요인의 부정적 효과로 내수는 소폭 증가 전망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안정화(영향 축소) • 5G 서비스 시장의 성장 • 신제품 출시 • 비대면온라인 산업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 • 스마트폰 PC 시장 포화 및 교체 주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신제품 교체수요로 증가 기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개선 • SSD를 비롯한 첨단제품 수요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D 가동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소재 부품 수요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부품을 포함한 파급효과에 따라 소폭 변화 전망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생산량 증가 및 에너지신산업 투자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연기관차 생산량 소폭 감소에 따른 납축전지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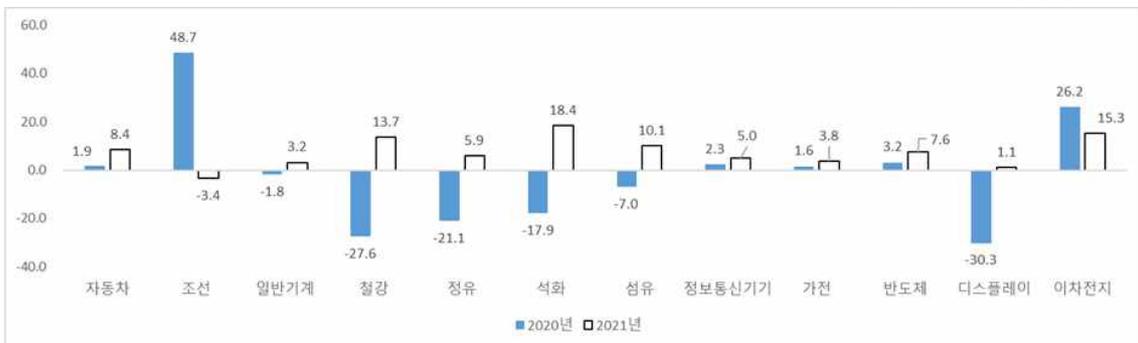
□ 수입 : 12대 산업 대부분 큰 폭 증가

○ 경기회복 등으로 2021년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비교적 높은 수입 증가 전망

- 자동차 등은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은 저가 범용 제품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제품 수입이 증가

〈그림 II-7〉 2021년 주요 산업별 수입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기계산업군) 올해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보이는 조선을 제외하면,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4.2% 수입 증가 전망
 - 수입 모델의 증가, 수입 단가 상승과 더불어 고급 수입차 수요가 지속되어 2021년 자동차 수입은 8.4% 증가 전망
 - 조선은 올해 수입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기자재 수입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3.4% 감소 전망
 -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및 부품의 수입 증가로 일반기계의 수입도 3.2%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저가 범용제품의 국내 진출 확대, 환율 등에 따른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소재산업군의 수입액은 11.6%나 큰 폭 증가 전망
 -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철강 수입은 13.7%나 늘어날 전망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 나프타의 수요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정유 수입은 5.9%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중저가 수입 물량의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의 상승 등으로 수입이 18.4%나 증가 전망
 - 섬유도 수요 확대와 더불어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 중저가제품의 수입 확대 등으로 수입이 10.1% 증가 전망
- (IT산업군) 해외생산 제품의 수입 등에 힘입어 IT산업군의 수입도 6.4%나 증가

- 해외생산 제품의 국내 유입 증대, 중국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 내수의 소폭 증가세 등으로 국내 중견 브랜드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전 수입은 3.8% 성장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전반적인 수요 증가세, 해외 경쟁기업의 신제품 출시, 해외생산 제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5% 증가 전망
- 반도체는 특수목적용 반도체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7.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는 수요처가 다변화되는 등 수입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만, LCD 재고 관리 물량이 축소되면서 수입이 1.1% 증가하는데 그침.
- 이차전지는 내수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분의 수입 증가로 15.3%나 수입 증가

〈표 II-11〉 2021년 주력산업의 수입 변화 주요 요인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급차 수요증가 • 수입 단가 상승 • 외자기업체 수입 모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완성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증가에 따른 수요층 확대와 고급차 수요 증가로 증가세 지속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운반선 건조 증가 및 건조 척수 증가에 따른 기자재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탱커 및 대중국 벌크선 수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기자재 수입 및 대중국 벌크선 유입이 예상되나, 규모는 소폭 감소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설비 증설 • 투자 확대에 따른 제조장비 및 부품류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 국산화에 따른 자체 생산 대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전반의 회복세로 기계부품, 장비류 수입 증가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건설경기 상승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 해외기업의 저가 수입 물량 유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재 대응 • 수입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동남아시아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기저효과로 큰 폭 증가 예상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 • 하반기 석유화학제품용 나프타의 수요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프타 수요 감소세가 상반기까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단가 상승과 전년도 하반기 기저효과로 4.4% 증가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가 범용제품 수입 물량 증가 • 제품 단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의류, 의류용 섬유소재 및 부자재 수입수요 확대 • 수요산업의 생산 회복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입수요 확대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 해외생산제품 역수입 및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 임금상승률 둔화 등 민간소비 제약 • 선진권 및 개도권의 코로나19 지속으로 공급망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 및 국내 생산활동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입 증가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내수(소폭 성장) • 중국의 국내 진출 확대 • 해외생산 및 위탁생산 증가 • 높은 역수입 비중 • 환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중견 브랜드 기업 성장 • 코로나로 해외 공급망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요인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나 국내 브랜드 경쟁력 우위로 수입은 소폭 증가 전망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기업 신제품 출시 • 국내제품의 역수입 증가 • 5G 전국망 구축 • 비대면 온라인 수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저하 • 주요국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급차질 및 신제품 출시 지연 • 국내 제품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신제품 및 비대면 수요에 힘입어 증가 전망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용 반도체 수요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시스템반도체는 수입이 증가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처 다변화 • 코로나 영향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재고관리 물량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폭 증가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확대를 위한 역수입 증가, 중국산 중형 및 소형 이차전지 수입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이차전지의 수입 증가

□ 생산: 수출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대부분의 산업 증가

○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이 다소 감소하지만, 대부분 산업이 생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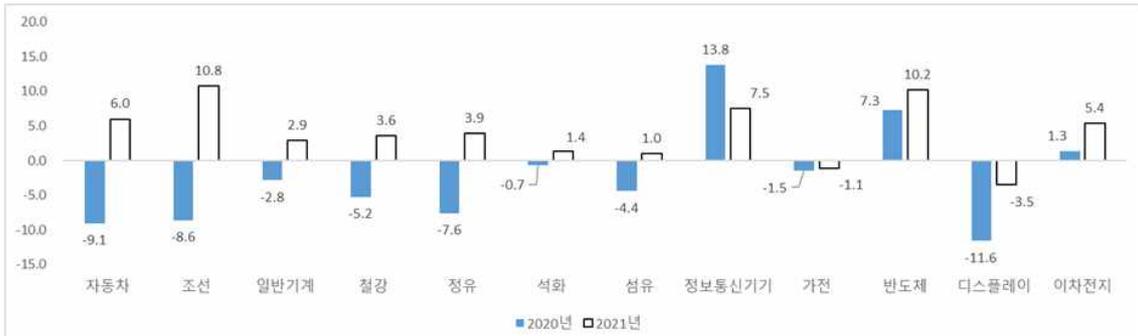
- 내수는 감소하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 및 물량 기준 조선 등의 생산이 증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향으로 내수 및 수출의 증가로 반도체와 통신기기는 여전히 높은 생산 증가세 기록

- 가전, 디스플레이 등도 감소하기는 하지만 감소율이 크게 둔화

-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섬유, 이차전지 등은 3% 내외의 성장세 기록

〈그림 II-8〉 2021년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기계산업군) 주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와 조선이 비교적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하고, 일반기계도 성장세를 보여 기계산업군 전반에 걸쳐 생산은 증가할 전망

- 소형 SUV의 해외생산 시작, 외자계업체의 생산 물량 조정 등이 예정되어 있지만, 세계 시장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신규 세그먼트 생산 등으로 2021년 자동차 생산은 6% 증가 전망

- 조선은 LNG, LPG 등의 운반선 건조가 증가하면서 탱커와 컨테이너선의 건조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10.8%나 증가 전망

- 일반기계는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 및 스마트화 설비투자 등의 확대로 생산이 2.9% 증가할 전망

○ (소재산업군) 수요산업의 경기회복으로 소재산업군의 생산도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동 여건이 다소 불안정하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내수 및 수출이 증대되어 철강 생산도 3.6% 증가할 전망

- 나프타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송용 제품 수요 증가로 정유의 생산은 3.9%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사고 생산설비 재가동 및 신규 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기초유분 및 합성수지가 생산 증가를 견인하나 중간원료 수입수요 감소로 증가 폭을 제한할 전망(1.4% 증가)
- 국내 생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생산제품의 수입 확대, 주 52시간 근로의 중소기업 적용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세계수요의 확대에 따라 섬유도 생산이 1% 정도 증가 전망
- (IT산업군) 가전과 디스플레이의 생산이 다소 감소하지만,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수요 증대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 증가 전망
 - 내수 성장, 제품의 프리미엄화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생산 증가,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전 생산은 1.1% 감소 전망
 - 신제품 출시, 국내외 수요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해외생산 및 해외 부품조달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 생산은 7.5% 증가 전망
 - 지속적인 국내외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으로 반도체 생산은 10.2% 큰 폭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LCD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3.5% 감소 전망
 - 이차전지는 해외생산 증가 및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해외 수요증가와 더불어 가동률 낮은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이 5.4% 증가할 전망

<표 II-12> 2021년 주력산업의 생산 변화 주요 요인

	증가(긍정) 요인	감소(부정)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증가 신규 세그먼트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자계업체 생산물량 조정 소형 SUV 현지 생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감소에도 수출 증가로 증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NG운반선, LPG운반선의 건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커와 컨테이너선의 건조 감소 및 건조 컨테이너선의 규모가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NG운반선 및 LPG운반선의 건조량 증가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제조업의 저탄소산업구조 전환 및 기존 설비의 스마트화 설비투자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재고 및 공급과잉 민간주택건설 부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산업 설비투자 견인 및 수출 증가로 생산 증가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수출 증가 기저효과 생산설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장 여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및 수출 증가, 2020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예상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용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의 내수 및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화학제품용 석유제품인 나프타의 수요 부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가 생산 확대를 견인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화사 생산설비 증설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원료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률 하락 수요 회복세 둔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유분, 합성수지 중심으로 전년 대비 견조한 증가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및 수출 확대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수요 확대 방역제품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생산 역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생산 증가세 전환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내수(소폭 성장) 제품가격 상승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불안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생산 증가 해외 위탁생산 증가 수출 감소,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감소와 수입 감소세 지속으로 감소요인이 우세하여 생산 감소세 지속 전망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및 내수 증가 신제품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생산과 현지부품조달 확대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내외 수요감소 및 공급망 차질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증가와 SSD 수출호조 지속으로 생산 증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 향상 생산설비 확장 수출 및 내수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설비 확장, 생산성 향상, 수요증가 등에 따라 생산 증가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OLED 수요 확대 고부가가치 패널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감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중심으로 회복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률 낮은 생산라인을 수출전용 설비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생산 증가 및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률이 제고되며 생산 증가

〈그림 II-9〉 2021년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 주 1) 전망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4. 정책과제

□ 정책 환경 진단

- 2021년도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수출 등이 201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업 경영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
- 이와 더불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19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이에 따라 신산업이 출현하는 등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기존 산업에서도 고급화 및 차별화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
- 중국의 부상, 미·중 마찰, 코로나 19 사태, 자국 산업 보호 육성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산업 기반 유지 및 구조조정 대책

- 많은 산업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유동성 공급, 수요 촉진, 고용 유지, 탄력적 노사관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정책 등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요구

〈표 II-10〉 산업기반 유지 대책

업종	정책 제언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중소기업체에 유동성 공급 확대 ● 한시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채매입 폐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이후 수주회복 대비 단기 고용 유지를 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고려 ● 노후 선박을 친환경 스마트 선박으로 교체 유도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 지원을 위한 단기적 기업 도산 방지 금융지원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국내 생산 LPG 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 원료용 중요 개별소비세 추가적 인하, 감면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적시성 확보를 위한 화평법 적용 일시적 완화 검토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확대를 위한 국방섬유 등 공공조달 사업 확대 ● 주요 수출시장 정보, 코로나19 확산 관련 동향 정보를 기업에게 실시간 제공 ● 고용유지를 위한 섬유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근무기간 확대 ● 단기적 납기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금융 지원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유망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 글로벌 온라인 유통 및 마케팅 확대, 수출입선 다변화 지원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가전, IoT제품 구매 시 일정 금액 한도 내 캐시백 즉시 제공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대응 특별연장근로 절차 간소화, 탄력근로제 유연화

- 경영상 애로 탈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주요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 및 매각, 대형화, 전문화, 비수익사업 정리 및 새로운 플랫폼 진출, 신산업분야로의 진출 등 구조조정을 추진

〈표 II-11〉 구조개편 방향

업종	정책 제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지속적 추진 ● 중형조선사 매각시 중소 수출선 생산 기반 유지하도록 추진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고부가 제품 전문화 전략 추진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효율 생산설비 폐쇄 및 품목 전환으로 생산 효율성 제고 ● 기술적 진입장벽 확보한 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익 부문의 사업 정리 ● 온라인 브랜드 개발 및 플랫폼 진출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활용 및 융합제품 인증 기반 확충 ● 수출제품 다변화, 유망제품군의 성장동력화 추진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후방기업의 안정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

< 자동차 >

- 자동차산업 생산이 지난 5년간 감소세를 기록하여 부품산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 급감에 따른 실적 악화는 재무 상황이 취약한 부품업체들에게 부정적 영향
 - 중소·중견 부품업체의 대출 연장 등을 통한 유동성 확대와 각종 세금감면, 납부 유예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요구 증가
 - 수출 중소부품업체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관련 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행정지도 강화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수진작책으로 자동차 내수를 유지하였으며 해외 수요가 안정화 될 때까지 내수기반 강화 필요
 - 2021년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 효과가 있어 수요절벽 예상
 - 수출 및 내수 추이를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채매입 폐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의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조선 >

- 2021년 유희인력이나 설비 발생이 예상되나, 2021년 이후 수주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반의 유지가 필요
-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과 같은 방안을 고려
- 내수 확대와 국내 해운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후 선박을 선제적으로 친환경 스마트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제도는 지속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유럽의 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진행이 필요
- 주요 중형조선사의 매각도 추진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선박 시대로 전환되면 우리나라 조선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선업의 유지가 중요
 - 최근 Aframax Tanker나 MR Tanker 수주 상황을 보면, 품질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선사는 중국 조선사보다는 국내 중형조선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중국조선사 견제뿐만 아니라 중소 선박이 많은 국내 해운사와의 상생, 생산 척수가 중요한 기자재 산업의 유지 등을 위해 중형조선사의 사업 유지는 국가적으로 중요
 - 따라서, 중형조선사 매각 시 중소 수출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 일반기계 >

- 국내 일반기계산업 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97% 이상으로, 대기업 대비 현금 및 현금화 자산이 부족하고 수출 및 신규수주 감소의 실적 악화로 인해 대출 등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기업의 안정성 지표 역시 제조업 평균보다 안정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베어링, 유압기기 등 일반목적용기계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공작기계,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특수목적용기계 기업들 대비 불안정

-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 유지가 핵심으로, 기계장비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후장비의 리뉴얼(수리·개조) 지원과 더불어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필요
 -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산업계에 적극 적용하고, 스마트산단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입주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친환경 기술 수요 증가 트렌드와 소량 다품종 개발에 특화된 특수목적용기계 산업구조의 경우 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가능

< 철강 >

- 2020년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감소한 반면, 수요 부족 대응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고부가제품 위주 전환, 생산원가 절감, 저성과 사업분야 매각 등의 노력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비 개선한 사례 존재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위주의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기업 도산 방지를 위한 금융지원 필요
- 일본의 설비 합리화, 유럽의 철강 탄소중립 추진 등 선진국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 같은 신흥국은 대형화를 통한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우리 철강산업 역시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고부가 제품 전문화의 방향으로 업계가 자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조성자 역할을 수행

< 석유화학 >

-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아세안 국가 공략 필요
 - 아세안 국가는 아직 석유화학산업이 초기 단계라 공급량 부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
 -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미국의 에탄기반 폴리에틸렌(LDPE, HDPE)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감소 예상
-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문제에서 정부 차원 대응 필요
 - 관세협정으로 0~5%의 낮은 관세를 유지하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업 차원 대응의 어려움을 정부가 대신 대응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 필요
 - 아세안 내 국가마다 다른 수입규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부의 빠른 지원 필요
 - * 인도네시아는 정부 공인 수입업자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신속한 행정처리 필요

< 정유 >

- 수입 LPG와 국내 생산 LPG 간 수입 부과금 형평성 개선
 - 현재 국내 생산 LPG에는 리터당 16원의 수입 부과금이 적용되지만, 수입 LPG에는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
 - 국내 생산 LPG의 가격경쟁력 및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LPG 생산용 원유에 부과되는 석유 수입 부과금의 감면 제고가 요구

○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추가적 인하 및 감면 필요

- 주요국에서는 중유 등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
-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도화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중유 투입 비중을 높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에 대한 제고가 필요

○ 석유 수입 및 판매 부과금 납부의 추가 유예 및 일시적 요율 완화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정유사의 단기적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석유 수입 부과금의 추가 유예와 요율 완화 및 감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섬유 >

○ 경영 악화 및 수익성이 낮은 부문의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될 전망

- 패션 유통 대기업 및 벤더들의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중소 협력기업의 2차 피해가 확대되어 구조조정이 가시화
- 패션 대기업의 매출 실적이 부진한 매장 정리,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등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패션업계 및 섬유 소재 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속될 전망

- 2021년 매출 및 이익률이 소비 회복으로 다소 나아지겠으나,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구조조정 압력은 상존

○ 구조조정 방향은 비수익 부문의 과감한 사업 정리, 온라인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새로운 활력 모색

< 가전 >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위축 우려가 여전하며 2021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내수 촉진 정책이 요구됨.
 - 기존 정책은 고가 완제품의 구매비용을 환급하는 형태의 경직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형태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소형가전 또는 IoT 제품 구매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캐시백을 즉시 제공하는 형태
-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 도입이 본격 시행(2021.1.1.)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절차 간소화, 탄력근로제 유연화로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정보통신기기 >

- 5G망 구축 및 투자 확대와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등 내수를 촉진하여 지원
 -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유망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으로 국내 생산활동 및 투자 여건을 개선
- 글로벌 온라인 유통 및 마케팅 확대, 수출입선 다변화 및 시장개척을 지원
 - AI 및 5G 기반의 융합 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과 현지정보 지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확대
 - 차세대 부품 및 5G 네트워크장비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기술·투자 정보, 해외인증, 온라인 마케팅 등)을 강화

< 디스플레이 >

○ 패널사의 LCD 구조조정이 진행 중으로 산업 생태계 변화가 이어짐

- BOE의 CEC Panda를 매수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CSOT로 매각함에 따라 과점 구조가 강화

- LCD 소재 부품의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전략 수정이 요구되며 안정적인 출구 전략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및 신산업 대응

○ 신산업에 대해서는 수요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요구

<표 II-12> 업종별 주요 신산업분야와 정책 방향

업종	신산업분야 및 정책 제언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수소전기차 연료 보조금 신설 ● 부품국산화율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적용 고려 ●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장기 저리 특별 금융, 신용보증 확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선박 관련 연구개발, 기자재 국산화, 상용화 추진 ● 그린뉴딜 관련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진출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신제품(전기굴삭기)을 디젤엔진 제품과 같도록 가격 보조금 지급해 보급 확산 ● 스마트산단 추진사업과 연계한 입주기업의 제조혁신(스마트화, 디지털화) 지원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그린 뉴딜과 연계된 공정 스마트화 촉진 ● 에너지산업에 필요한 신규 강종 개발로 수요 창출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질유 중심 고부가제품 생산 비중 확대 ● 고도화설비 투자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 관련 고기능성 섬유, 청정가전용 필터 ● 방호 관련 제품, 섬유제 위생용품, 바이오 메디컬 섬유 ● 비대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AR/VR 활용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제안, 가상 코디네이터·피팅룸 개발 지원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분야(5G 융합 단말, 플렉서블 폰, SSD 등) 핵심 기술 개발 지원 강화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홈 시장 확대 대비 ICT 역량 확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디스플레이(폼팩터 다양화, 마이크로 LED) 시장 개척 ● 틈새시장(차량용 디스플레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내 수익성 확보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등에 대응하여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연구 개발 및 실증사업 투자 ●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치환경 점검, 어플리케이션별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제조 기술확보 관련 연구개발 투자

< 자동차 >

- 한국형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전기차, 수소차 관련 인프라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상용차용 대용량 충전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어 민간보조사업 신설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를 허용하고 상업용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신설을 통한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의 선제적 투자 필요
 - 한국산 부품사용 기준 마련하여 부품국산화율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적용 고려
 - 전기차 시장 초기 보급확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A/S 정비공장 구축 의무화 등의 조치 실시
- 전동화, 자율주행화 등 미래차 부품 개발은 물론 수요 활성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금융지원 방안 모색 필요
 - 미래차 부품개발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고 수익성 확보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해 금융지원도 장기 저리 특별 금융프로그램과 신용보증 대폭 확대 등 방안 모색

< 조선 >

- LNG 연료 추진 선박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수소·암모니아·전기추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며, 해운산업과 협력하여 실선 건조 및 상용화까지 고려
 - EU ETS, IMO EEXI 등 예상보다 빠른 친환경 정책의 추진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준비 가속화
 - 조선산업의 소재·부품·장비는 자동차산업과 다르게 기술개발 후 제조사의 채택으로 국산화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박을 건조하고 장시간 신뢰성을 확보해야 세계 시장 진출이 가능
 - 유럽기술개발 프로젝트나 중국제조 2025에서 선박의 건조·개조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실선 건조와 장기간 신뢰성 확보를 포함하기 어려움.
 -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강의 Track Record 확보가 어려워 전용선을 직접 투자하고 건조하여 실적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경험
 - LNG운반선 화물창 국산화를 위한 KC-1 기술은 실선까지는 건조했지만, 장시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가 부족하여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지속
 - 해운산업 재건, 해운-조선 상생, 조선기자재 산업의 유지·강화를 위해서라도 실선 건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개발, 신뢰성 확보와 상용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
-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개발사업 예타는 7년간 1조가 넘는 규모이나, 자율운항선박 기

술 개발사업 예타는 5년간 1,603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

- 자율운항선박은 최적 운항, 예지보전 등으로 해운사의 운영비용절감과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전 세계가 기술개발 경쟁 중
 - 자동차산업에서 자율주행차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처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개발 확대 필요
-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에 대해 조선산업에서 진출한다면 산업계의 전략 필요
-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는 2008년 이후 풍력발전예 각자 진출하고 단기성과창출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 보유
 -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조선해양플랜트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고 그린 뉴딜로 실질적인 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선사가 다시 진출하기 좋은 환경
 - 따라서, 조선업계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에 진출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술개발, 역할 분담 등을 산업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반기계 >

- 세계적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수요가 높아져 가운데 전기 굴삭기의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양산준비가 갖춰져 있으나 초기 전기자동차와 같이 배터리 가격 문제로 수요가 없는 상황
- 국내 및 세계 환경리스크 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우선 국내 제조사가 제조한 전기굴삭기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

- 우선적으로 실내 및 제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1.7톤 굴삭기 등에 대하여 디젤엔진 제품과 같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보조금 시행

< 철강 >

-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등과 연계하여 공정의 스마트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증가 및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수소, 에너지 산업과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요구되는 강종 개발을 통해 수요를 창출
- 환경경쟁력이 철강산업의 주요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환경규제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관련 투자와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

< 석유화학 >

- 글로벌 선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 기업을 국내 유화사가 인수하거나 투자 지분을 확대하는 전략 추진
 - (인수) LG화학은 SAP, ABS수지, Elastomer 분야 전문기업을 인수하여 경쟁력 확보; SK종합화학은 프랑스 아케마사의 기능성 폴리올레핀 사업을 인수(4천억원)
 - (지분투자) 롯데케미칼은 일본 쇼와덴코사의 지분 4.7%를 1.7천억 원에 매입하는 지분 투자 시행
- ICT산업의 업황은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요 증가에 따라 공정화학물의 공급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의 선사용 후등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 정유 >

- 고도화설비 투자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와 경질유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 구축 등 석유화학 부문과의 연계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

< 섬유 >

- 코로나 이후 항바이러스, 건강 등의 관심 확대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헬스케어관련 고기능성 섬유 개발 지원: 마스크·방진복 등 방호관련 제품, 섬유제 위생용품, 청정가전용 필터 등 산업용 소재, 바이오메디컬 섬유 등
- 섬유산업의 공정 및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섬유기업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 융합 의류 밸류체인 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패션의류산업과 빅데이터, AI, AR 및 VR의 융합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제안, 가상 코디네이터, 가상 피팅룸 등 개발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시장 성장 가속화 전망, 의류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 확대
 - 또한 섬유원료, 원사, 직물, 부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대응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
 - 재택, 온라인 교육 등 활성화 대응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인프라 개발 및 도입 지원

< 가전 >

- 스마트홈 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ICT 역량의 확보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가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의 적용이 활발한 분야이며, 다양한 업종(가구, 건설, 자동차, 통신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홈 시장을 형성 중임.
 - *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스마트홈 시장의 전년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7%p 감소한 15.9%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24.6% 성장 전망
 - 첨단 분야의 인력양성과 가전산업 기존 재직자 교육으로 첨단 ICT 활용의 전문성을 제고
 -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 강세로 가전 시장에 대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플랫폼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
- 스마트제조는 소비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대표적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향후 맞춤형 수요시장에 대비해야 함.

< 정보통신기기 >

- 4차 산업혁명, 디지털·온라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구조고도화가 필요
 - AI, 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및 융합제품의 인증 및 실증 기반을 확충하여, 차세대 스마트기기, 통신장비, 서버 등 수출제품 다변화와 유망제품군의 성장 동력화를 추진

- 핵심 소재부품 육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조달처 강화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5G망 고도화 등 지능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
 - 해외생산 확대로 약화되고 있는 국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AI·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규제혁신, 테스트베드 조성 등 국내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스마트제조로 적극 전환
- 대-중소기업 및 기업간 협력 확대 또는 M&A 등을 통해 차세대 핵심부품 및 장비의 GVC 참여 역량을 강화
- 5G 융합단말, 플렉서블폰, 차세대 통신장비, SSD 등 미래 유망 제품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 AI,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분야 핵심원천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
- 디지털·온라인 시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디지털·온라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

< 디스플레이 >

- 폴더블폰이 더 다양한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롤러블 디스플레이도 출시됨에 따라 폼팩터 혁신은 다방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마이크로 LED의 제품 출시를 발표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시장 형성이 시작되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양산화 지원이 필요
- 중국 LCD 양산 능력 확대로 인하여 틈새시장에서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해지며 적극적 개척이 필요

- 중국의 10.5세대 8.6세대 라인가동으로 인하여 양산 능력 확대로 TV용 LCD 시장에서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짐
- 코로나19로 인한 IT 제품 수요 확대를 필두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디지털 사이니지 등 틈새시장에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해짐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변적인 생산이 가능한 설비투자 등 적극적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이차전지 >

- 그린 뉴딜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등 이차전지 수요산업에 대한 재투자 기대
 - 이차전지 화재 등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지속적인 R&D 및 실증사업에 대한 투자 긴요
 - 이 외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별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
- 유럽을 중심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후 환경친화적 이차전지 제조기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유럽은 이차전지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위치하며,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의 순환경제를 염두하고 이차전지를 설계하고 있음.
 - 추후 유럽의 이차전지 내재화 시,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제조 용이성 등이 하나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제조 기술확보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이차전지 제품제조와 관련한 다양한 R&D 투자에 지원할 필요

□ 새로운 GVC 전략

○ 변화되는 GVC에 대응하여 중국의 의존을 줄이거나 국내 리쇼어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가치사슬에 있어 국내의 새로운 산업기반 확충이 필요

- 고기술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와 더불어 리쇼어링을 통한 국내 생산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등과 같은 제조 혁신이 선행

〈표 II-13〉 가치사슬 전략

업종	정책 제언
자동차	● 납품선 다변화(스마트화로 국내 조달 비중 강화)를 통해 범용 부품 중국 의존도 경감
조선	● 국내 블록기반 유지를 위한 중국 생산 블록의 국내 유입
철강	● LNG운반선, 친환경스마트 선박용 기자재 국산화, 조달처 다각화
정유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간 직수출 확대
석유화학	● 해외 저장·유통·판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익성 강화
섬유	● 대아세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대응 지원
정보통신기기	● 해외생산으로 약화된 국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AI,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규제혁신, 테스트베드 조성 등 국내 투자 여건 개선
가전	●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콘텐츠, 서비스 융합) 분야의 국내 정착 유도
디스플레이	● 스마트제조시스템 도입으로 국내 제조전문기업 육성
이차전지	● 중국 외 지역(베트남)으로 GVC 확대 추진을 위한 ODA 동반 산업 인프라 투자(전력, 교통시스템) 지원

< 자동차 >

○ 납품선 다변화를 통해 범용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

-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현지생산공장을 구축 중인 동남아 등으로 노동집약적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안 모색
- 재정 상황이 취약한 부품업체들이 동남아에 추가로 생산설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
- 우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제조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국내 조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조선 >

- 중국에서 생산하는 블록의 경우,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블록기반 유지에 위해서라도 국내 유입을 검토할 필요
- LNG운반선이나 친환경스마트 선박의 주요 기자재는 글로벌 1~2개사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 국산화 노력이나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
 - 주요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상용화는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수이므로 기술개발을 확대해야 함.

< 철강 >

- 국내 유턴기업 증가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 유도
 - 최근 철강산업의 하공정 분야에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사례가 등장
 - 상공정이 강한 우리 철강산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철강산업의 리쇼어링 확대가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하공정 간의 원활한 협력, 철강산업의 스마트화 확대 등이 중요할 것이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수단을 강구해나갈 필요

< 정유 >

- (원유 수입) 원가경쟁력 향상 및 정제마진 개선을 위해서는 고도화 처리시설 확충과 더불어 유종 및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
- (석유제품 수출)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국가 간 직수출 확대 및 해외 저장·유통·판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수익성 강화

< 섬유 >

- 가격경쟁력이 약한 봉제의류 및 중저가 섬유소재는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
 -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봉제의류는 대규모 물량으로 국내 인프라가 약해 글로벌 오더 물량을 맞추기 어렵고, 인건비가 높아 의류 납품단가를 맞추기 쉽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주요 수입품목인 봉제의류, 중저가 원사 및 원단 등은 수입에 일정 의존하되, 국내는 기획 및 R&D, 고기능성 제품 생산에 집중
- 국내 섬유산업의 대규모 인력 감소 및 생산물량 감소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조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물류·유통 등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부가 제품은 공급망을 확대하되, 고기능성 소재부품 및 장비는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국산화 전략을 동시 진행
 - 해외 공급망은 섬유소재 부문에서 중국이 전체 수입의 48.0%로 약 절반을 차지하며, 베트남이 14.5%로 양국 의존도가 62.5%를 상회

- 미국, 이태리, 독일 등지로부터는 고부가 기능성 섬유소재 및 하이엔드 의류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동시다발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공급선 전환 및 다변화는 현실적 실효성은 낮은 측면이 있었음.
- 다만 고기능성 제품 및 장비 분야는 국내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추진 필요

< 가전 >

- 가전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비용효율이 높은 현지 생산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GVC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됨.
- 국내생산 효율화로 제조경쟁력 유지
 - 스마트제조 도입과 함께 국내 제조전문기업을 육성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부가가치 가치사슬 단계의 경쟁력 강화
 - 제품 스마트화 및 서비스화 가속으로 관련 콘텐츠와 서비스 융합이 가치사슬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과 실증 R&D 등을 통해 이러한 고부가가치 가치사슬 단계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반도체 >

-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강화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약점이 노출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중점으로 육성하여 발달하면서 제조 장비 및 소재는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구조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인하여 국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 재확인
-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은 유지 가능
-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일부 산업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이 유지된 것은 정부의 빠른 대응과 기업의 탄력한 공급망 관리 능력에 기인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이후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한 “소부장 전략”을 신속하게 발표하며 지원 강화
 -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도 반도체 생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이 철저하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
-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강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지원
- 불안정한 대외 정치·경제와 함께 자연재해까지 발생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경험하면서 강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부상

-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대표산업으로 성장하여 반도체산업이 위태로워지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지속해서 반도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부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강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도

< 디스플레이 >

- 전자 기업, 패널 기업 중심으로 GVC 다변화 추진 중이며 미개척 국가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
 - 삼성, LG 모두 중국 외 지역으로의 GVC 비중확대를 추진 중이며 베트남을 제외한 지역은 산업 기반이 열악하여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 사회 기초 자분을 위한 ODA와 동반할 필요성이 높음
 - 후방기업의 동반 진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이차전지 >

- 수요지 인근으로 소재기업의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코로나 19 이후,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지며, 이차전지 최종재는 물론이고 핵심소재 기업들도 해외진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자국 내 이차전지 기업이 부재한 유럽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안) 등을 제시

- 더불어 중국기업의 유럽진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의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
-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한 친환경성 요구도 증가와 생산성 증대에 대한 고민 확대에 따라 새로운 산업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산업 경쟁력 유지를 지원할 필요
 -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한 투입에너지의 친환경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기업 중심으로 RE100 도입 등 변화하는 생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내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가동률이 이미 최대인 상황이고 생산 확대를 위해 디지털 트윈 등의 스마트팩토리 개념을 보유한 설비 합리화를 추구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외부환경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 및 산업지원정책을 모색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1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65,571	23,834	32,535	56,370	31,319	33,618	64,937
	(2.4)	(-27.7)	(-0.2)	(-14.0)	(31.4)	(3.3)	(15.2)
조선	20,159	9,775	9,941	19,716	10,427	9,843	20,270
	(-5.2)	(-11.5)	(8.3)	(-2.3)	(6.7)	(-1.0)	(2.8)
일반기계	53,557	23,820	23,130	46,950	24,818	25,108	49,926
	(-1.9)	(-9.7)	(-11.6)	(-12.3)	(4.2)	(8.6)	(6.3)
철강	31,043	12,901	14,005	26,906	14,143	14,825	28,968
	(-8.6)	(-19.0)	(-7.3)	(-13.3)	(9.6)	(5.9)	(7.7)
정유	40,690	12,674	12,274	24,948	13,659	15,678	29,377
	(-12.2)	(-36.7)	(-40.6)	(-38.7)	(7.8)	(27.7)	(17.6)
석유화학	42,578	17,265	18,487	35,752	19,897	20,207	40,104
	(-14.8)	(-20.4)	(-11.5)	(-16.0)	(15.2)	(9.3)	(12.2)
섬유	12,959	5,437	5,580	11,017	5,987	5,980	11,967
	(-8.0)	(-17.8)	(-12.0)	(-15.0)	(10.1)	(7.2)	(8.6)
정보통신기기	23,136	12,689	13,861	26,550	13,838	15,331	29,169
	(-18.6)	(20.1)	(10.3)	(14.8)	(9.1)	(10.6)	(9.9)
가전	6,957	2,969	3,858	6,827	3,400	3,376	6,776
	(-3.6)	(-16.0)	(11.1)	(-1.9)	(14.5)	(-12.5)	(-0.8)
반도체	93,930	46,862	50,274	97,136	53,279	56,575	109,854
	(-25.9)	(-1.3)	(8.2)	(3.4)	(13.7)	(12.5)	(13.1)
디스플레이	20,494	7,334	9,862	17,196	7,422	10,187	17,609
	(-17.0)	(-24.5)	(-8.5)	(-16.1)	(1.2)	(3.3)	(2.4)
이차전지	7,416	3,475	4,092	7,566	4,065	3,929	7,995
	(2.6)	(-5.7)	(9.7)	(2.0)	(17.0)	(-4.0)	(5.7)
12대 합계	418,490	179,035	197,899	376,934	202,254	214,657	416,952
	(-12.4)	(-14.6)	(-4.8)	(-9.9)	(13.0)	(8.5)	(10.6)
	<77.2>	<74.4>	<75.0>	<74.7>	<74.6>	<74.1>	<74.3>

-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은 전체 수출에서 12대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2021년 12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

	2019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762 (-2.3)	921 (7.2)	940 (4.0)	1,861 (5.6)	897 (-2.6)	901 (-4.2)	1,798 (-3.4)
조선 (만 CGT)	138 (15.0)	120 (55.8)	118 (93.4)	238 (72.5)	127 (5.8)	86 (-27.1)	213 (-10.5)
일반기계 (10억 원)	96,887 (-0.8)	46,765 (-5.2)	48,599 (2.2)	95,364 (-1.6)	48,285 (3.2)	49,073 (1.0)	97,358 (2.1)
철강 (천 톤)	53,226 (-0.9)	24,847 (-10.1)	23,530 (-8.0)	48,377 (-9.1)	26,015 (4.7)	24,448 (3.9)	50,462 (4.3)
정유 (십만 배럴)	10,806 (1.1)	5,310 (1.0)	4,995 (-10.0)	10,305 (-4.6)	5,220 (-1.7)	5,458 (9.3)	10,678 (3.6)
석유화학 (백만 톤)	10,984 (-1.9)	5,252 (-6.1)	5,249 (-2.6)	10,501 (-4.4)	5,339 (1.7)	5,358 (2.1)	10,698 (1.9)
섬유 (10억 원)	76,836 (-0.8)	36,406 (-3.1)	38,259 (-2.6)	74,665 (-2.8)	36,762 (1.0)	39,130 (2.3)	75,892 (1.6)
정보통신기기 (10억 원)	51,196 (4.2)	27,691 (6.5)	26,807 (6.4)	54,498 (6.4)	28,807 (4.0)	28,281 (5.5)	57,088 (4.8)
가전 (10억 원)	25,850 (-1.6)	12,746 (-1.0)	13,031 (0.4)	25,777 (-0.3)	12,781 (0.3)	13,027 (0.0)	25,808 (0.1)
반도체 (10억 원)	54,957 (4.8)	26,121 (-5.1)	32,729 (19.6)	58,331 (7.2)	28,759 (12.1)	32,742 (0.8)	61,502 (5.8)
디스플레이 (10억 원)	39,159 (-13.0)	18,404 (-7.4)	16,052 (-16.7)	34,456 (-12.0)	17,967 (-2.4)	16,093 (0.0)	34,060 (-1.1)
이차전지 (10억 원)	2,884 (26.9)	1,516 (0.2)	1,723 (25.8)	3,240 (12.4)	1,961 (29.3)	2,060 (19.5)	4,022 (24.1)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
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21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17,326 (-1.1)	8,283 (3.2)	9,381 (0.9)	17,663 (1.9)	9,576 (15.6)	9,578 (2.1)	19,154 (8.4)
조선	2,380 (-9.7)	1,767 (43.8)	1,772 (54.0)	3,539 (48.7)	1,774 (0.4)	1,645 (-7.2)	3,419 (-3.4)
일반기계	28,762 (-3.5)	13,800 (-4.4)	14,438 (0.8)	28,238 (-1.8)	14,256 (3.3)	14,987 (3.8)	29,143 (3.2)
철강	21,650 (-0.9)	8,767 (-23.6)	6,915 (-25.5)	15,682 (-27.6)	9,643 (10.0)	8,180 (18.3)	17,824 (13.7)
정유	17,539 (-18.2)	7,479 (-9.5)	6,362 (-31.4)	13,841 (-21.1)	7,039 (-5.9)	7,618 (19.7)	14,657 (5.9)
석유화학	12,676 (-12.8)	5,195 (-22.5)	5,214 (-12.8)	10,409 (-17.9)	6,006 (15.6)	6,321 (21.2)	12,327 (18.4)
섬유	17,130 (-0.1)	7,330 (-5.7)	8,600 (-8.1)	15,930 (-7.0)	7,885 (7.6)	9,650 (12.2)	17,535 (10.1)
정보통신기기	26,584 (0.4)	13,009 (2.6)	14,191 (2.1)	27,200 (2.3)	13,713 (5.4)	14,835 (4.5)	28,548 (5.0)
가전	7,110 (-0.1)	3,508 (-5.6)	3,716 (9.5)	7,224 (1.6)	3,894 (11.0)	3,604 (-3.0)	7,498 (3.8)
반도체	47,032 (5.2)	23,054 (-2.2)	25,477 (8.6)	48,531 (3.2)	24,548 (6.5)	27,681 (8.7)	52,229 (7.6)
디스플레이	4,698 (-22.2)	1,883 (-27.0)	1,392 (-34.3)	3,275 (-30.3)	1,898 (0.8)	1,411 (1.4)	3,310 (1.1)
이차전지	1,581 (1.9)	876 (8.4)	1,119 (44.8)	1,995 (26.2)	1,051 (20.0)	1,249 (11.6)	2,299 (15.3)
12대 합계	204,468 (-2.6) <40.6>	94,951 (-6.2) <41.4>	98,577 (-4.5) <42.0>	193,527 (-5.4) <41.7>	101,283 (6.7) <40.7>	106,759 (8.3) <41.1>	207,943 (7.4) <40.9>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은 전체 수출에서 12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2021년 12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

	2019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3,951 (-1.9)	1,628 (-19.8)	1,964 (2.2)	3,591 (-9.1)	1,856 (14.0)	1,950 (-0.7)	3,806 (6.0)
조선 (만 CGT)	955 (23.6)	449 (-12.5)	424 (-4.0)	873 (-8.6)	489 (8.9)	478 (12.7)	967 (10.8)
일반기계 (10억 원)	120,995 (-1.9)	58,647 (-3.4)	58,906 (-2.3)	117,553 (-2.8)	60,315 (2.8)	60,682 (3.0)	120,997 (2.9)
철강 (천 톤)	73,561 (-2.2)	34,568 (-7.5)	35,141 (-2.9)	69,709 (-5.2)	36,350 (5.2)	35,866 (2.1)	72,216 (3.6)
정유 (십만 배럴)	12,507 (-0.7)	5,904 (-5.5)	5,655 (-9.7)	11,559 (-7.6)	5,816 (-1.5)	6,199 (9.6)	12,015 (3.9)
석유화학 (백만 톤)	21,537 (-0.1)	10,713 (-0.5)	10,682 (-0.8)	21,394 (-0.7)	10,795 (0.8)	10,890 (2.0)	21,685 (1.4)
섬유 (10억 원)	72,052 (-2.8)	34,120 (-5.9)	34,744 (-3.0)	68,864 (-4.4)	34,570 (1.3)	34,950 (0.6)	69,520 (1.0)
정보통신기기 (10억 원)	47,202 (-8.0)	27,305 (15.8)	26,426 (11.8)	53,731 (13.8)	28,942 (6.0)	28,834 (9.1)	57,776 (7.5)
가전 (10억 원)	25,676 (-2.7)	12,096 (-4.5)	13,195 (1.4)	25,291 (-1.5)	12,243 (1.2)	12,770 (-3.2)	25,013 (-1.1)
반도체 (10억 원)	108,676 (-23.8)	54,357 (-1.0)	61,355 (15.7)	115,712 (7.3)	62,950 (14.5)	65,392 (6.4)	128,342 (10.2)
디스플레이 (10억 원)	57,552 (-12.7)	24,988 (-10.8)	25,909 (-12.3)	50,897 (-11.6)	23,988 (-4.0)	25,132 (-3.0)	49,121 (-3.5)
이차전지 (10억 원)	9,685 (13.6)	4,655 (-3.3)	5,155 (5.8)	9,810 (1.3)	5,247 (12.7)	5,090 (-1.3)	10,337 (5.4)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
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